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995-01

국립국어원
주최
국립국어원
주최
표

2023년 분야별 용어 정비

책임 연구원
이준환

국립국어원 2023-01-65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995-01

2023년 분야별 용어 정비

책임 연구원

이준환



국립국어원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국립국어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따라 2023년 분야별 용어 정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사업 기간: 2023년 4월 19일 ~ 2023년 12월 15일

2023년 12월 15일

책임 연구원: 이준환(전남대학교)

연구 기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KOR 컨소시엄 국어국문학과)

책임 연구원: 이준환(전남대)

공동 연구원: 조재형(전남대), 백승주(전남대), 조경순(전남대), 최준(전남대),
유하라(성균관대), 임태운(남부대), 최지영(송실대), 이수진(전남대),
공나형(전남대), 최윤(강원대), 선한빛(전남대), 김지혜(한신대)

보조 연구원: 최옥정(전남대), 김다솔(전남대), 이유미(전남대), 고상미(전남대),
하현정(전남대), 이지성(전남대), 오지수(전남대), 전철한(전남대),
진주(전남대), 강영란(전남대), 박찬우(전남대), 김종희(성균관대),
조교현(성균관대), 미즈카이 유카리(전남대), 런 명지에(전남대)

보조원: 김보미(전남대), 김유정(전남대)

<국문 요약>

2023년 분야별 용어 정비

본 과업은 그간 독자적이거나 산발적으로 만들고 집적하여 이용해 온 용어 자료를 「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정비하고 보완하여 용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언중의 용어 사용의 편의성과 효용성을 높이는 것이다. 구체적 과업의 첫째 목표는 『사회 재난 핵심 용어집』, 『영한중 지식 재산권 용어 사전』, 『산업 자원 용어 약어 해설집』, 『통상 관련 용어집』, 『해외 투자 용어 사전』, 『식품 첨가물 용어집』, 『기구 용기 포장·식의약품 용어집』, 『발전 용어집』에 실린 12,597개 용어에서 정비 대상 용어를 골라 표제어, 원어, 분야 분류, 정의문, 사용 예시, 관련 용어 정보를 갖춘 용어를 1만 개 이상 정비하는 것이다. 둘째 목표는 공공 데이터 포털 등에 공개된 전문 용어집을 대상으로 7종 이상을 전산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용어 구축 시스템」에 탑재하고 용어의 표기, 원어, 일치어를 정비하는 것이다.

용어 정비와 관련하여 본 연구진에서는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한 지침에 따라 「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용어 정비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 『사회 재난 핵심 용어집』에서 1,694개, 『영한중 지식 재산권 용어 사전』에서 1,386개, 『산업 자원 용어 약어 해설집』에서 1,398개, 『통상 관련 용어집』에서 550개, 『해외 투자 용어 사전』에서 352개, 『식품 첨가물 용어집』에서 718개, 『기구 용기 포장·식의약품 용어집』에서 118개, 『발전 용어집』에서 3,902개의 용어를 정비하여 모두 10,118개 용어를 정비 완료하였다.

전문 용어집을 대상으로 한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진에서 대상 후보 자료 목록을 선별한 후 국립국어원과의 협의로 후보를 결정하고 원자료 구축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이용 허가를 받았다. 그런 후에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지침을 작성하고 확정하여 이에 따라 데이터를 구조화하여 「용어 구축 시스템」에 올리고, 대상 용어(표제어)·원어·정의문·관련 용어 정보 등을 정비하였다. 그 결과 「쉽게 고친 문화재 용어 자료집(민속학 미술사 용어 해설)」에서 506개, 「쉽게 고친 문화재 용

어 자료집(건축사 고고학 용어 해설)에서 684개, 「알기 쉬운 농업 용어집」에서 402개, 「국가 건설 기준 용어집(개정증보판)」에서 4,313개, 「2021년 기준 로봇산업 실태 조사」에서 211개, 「2016년도 퇴직 연금 금융 용어 정보」에서 366개, 「국제 환경 협상 용어집 A to Z」에서 649개 등 모두 7,125개의 용어를 전산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정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어 정비 분과에서는 표제어를 모두 한글로 표기하되 규범에 맞는 형태로 제시하였고, 구 이상의 것들은 구성요소 사이에 ‘^’으로 경계를 표시하였다. 원어는 정비 지침에 따라 입력하였으며, 『우리말샘』의 원어 정보를 참고하였다. 정의문은 기구축 자료의 정의문을 최대한 활용하되 쉽고 분명하게 이해되도록 손을 보았다. 용어가 여러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는 의미별로 표제어를 분리하고 정의문을 제시하여 표제어당 하나의 의미만이 대응하게 하였다. 각 용어는 의미, 계열어, 관련 용어의 분야를 고려하여 국가 과학 기술 표준 분류 체계에 따라 대분류, 중분류에 걸쳐 전문 분야를 판정하였다. 그리고 뉴스 기사, 정부 보도자료 등에서 표제어의 의미와 품사 정보에 걸맞은 용어의 사용 예시를 찾아 제시하였다. 끝으로 정비 대상인 표제어와 관련된 용어들이 표제어와 맺는 관계를 드러내는 식으로 관련 용어 정보를 구축하였다.

전문 용어집 대상의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분과에서는 정비 대상이 되는 전문 용어집을 모두 엑셀 형태로 변환하고 미시 구조의 정보를 일정한 질서에 따라 재배열하고 균일한 형식적 값을 갖도록 자동 또는 수동 형태로 처리를 하였다. 그런 후에 「용어 구축 시스템」에 용어집별로 탑재를 한 후에 한자, 영어 등의 원어 입력 작업, 이를 바탕으로 한 어종 표시 작업, 용어의 형태와 정의문을 고려하여 일치여 연결 작업을 실시하였고, 표제어의 표기 및 띄어쓰기를 국립국어원의 『용어 정보 집필 및 정비 지침서』에 따라서 점검하고 보완하였다.

주요어: 분야별 용어, 용어 정비,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용어 구축 시스템」, 표제어, 원어, 정의문, 분야 분류, 사용 예시, 관련 용어, 일치여 구축

<Abstract>

A Task on terminology maintenance and supplementation by specialized field in 2023

The goal of this project is to improve and supplement terminology data that have been made independently or sporadically and accumulated in the 「Terminology Construction System(용어 구축 시스템)」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to ensure stable management of terms, and to increase the convenience and effectiveness of language use. The first goal of this project is to select terms to be maintained from 12,597 terms published in the 『Sahoejaenanhaeksimyongeojeip(사회 재난 핵심 용어집)』, 『Yeonghanjungjisikjaesangwonyongeosajeon(영한중 지식 재산권 용어 사전)』, 『Saneopjawonyongeoeyageohaeseoljeip(산업 자원 용어 약어 해설집)』, 『Tongsanggwallyeonyongeojeip(통상 관련 용어집)』, 『Haeoetujayongeosajeon(해외 투자 용어 사전)』, 『Sikpumcheomgamulyongeojeip(식품 첨가물 용어집)』, 『Giguyonggipojang·Siguiyakpumyongeojeip(기구 용기 포장·식의약품 용어집)』, and 『Baljeonyongeojeip(발전 용어집)』 and to reorganize more than 10,000 terms with the title, original language, field classification, definition sentences, use examples, and related term information. The second goal is to computerize more than seven types of terminology published in public data portals, etc. into a machine-readable computerized database, and to be installed in the 「Terminology Construction System」 to suit the nature of terminology maintenance.

In order to improve more than 10,000 terms, the researchers conducted maintenance in the 「Terminology Construction System」

according to the guidelines provid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As a result, 1,694 terms were maintained in the 『Sahoejaenanhaeksimyongeojip(사회 재난 핵심 용어집)』, 1,386 in the 『Yeonghanjungjisikjaesangwonyongeosajeon(영한중 지식 재산권 용어 사전)』, 1,398 in the 『Saneopjawonyongeoageohaeseoljip(산업 자원 용어 약어 해설집)』, 550 in the 『Tongsanggwallyeonyongeojip(통상 관련 용어집)』, 352 in the 『Haeoetujayongeosajeon(해외 투자 용어 사전)』, 718 in the 『Sikpumcheomgamulyongeojip(식품 첨가물 용어집)』, 118 in the 『Giguyonggipojang·Siguiyakpumyongeojip(기구 용기 포장·식의약품 용어집)』, and 3,902 in the 『Baljeonyongeojip(발견 용어집)』 completed the maintenance of a total of 10,118 terms.

After the researchers selected a list of candidate data for the technical terminology collection, they decided on candidates under consultation with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and obtained permission to use the data from the original data construction institution or organization. After that, the task was carried out by preparing and confirming the guidelines for computerized databaseization, making them machine-readable accordingly, and having the title, original language, definition, and related language information in the 「Terminology Construction System」. As a result, a total of 7,125 terms were computerized, including 506 in the 『Swipgegochinmunhwajaeyongeoaryojip(minsokhakmisulsayongeoageoseol)(쉽게 고친 문화재 용어 자료집(민속학 미술사 용어 해설))』, 684 in the 『Swipgegochinmunhwajaeyongeoaryojip(geonchuk sagogohakyongeoageoseol)(쉽게 고친 문화재 용어 자료집(건축사 고고학 용어 해설))』, 408 in the 『Algiswiunnongeoopyongeojip(알기 쉬운 농업 용어집)』, 4,336 in the 『Gukgageonseolgijunyongeojip(Amended Supplementary Edition)(국가 건설 기준 용어집(개정증보판))』, 211 in the

『2021nyeongijunrobotsaneopsiltaejosa(2021년 기준 로봇산업 실태 조사)』, 360 in the 『2016nyeondotoejikyeongeumgeumyungyongeojeongbo(2016년도 퇴직 연금 금융 용어 정보)』, and 649 in the 『Gukjehwa ngyeonghyeopsangyongeojeipAtoZ(국제 환경 협상 용어집 A to Z)』.

The main contents of the reorganization are as follows. In the Terminology Improvement Division, all the heading words are marked in Korean and presented in a form that conforms to the norm, and for those above the phrase, the boundary is marked with ^ between the components. The original language information is displayed according to the processing method of the 『Urimalseom(우리말샘)』. The definition sentence was worked by making the most of the definition sentence of the instrument axis data, but made it easy and clear to understand. When the term has several meanings, the heading is separated by meaning, and the definition sentence is presented, so that only one meaning per heading corresponds. For each term, the specialized field was judged through major and middle categories according to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standard classification system, taking into account the fields of meaning, family terms, and related terms. In addition, examples of the meaning of the heading and examples of the use of terms suitable for the part-of-speech information were found and presented in news articles and government press releases. Finally, related word information was constructed in a way that presents terms related to the heading subject to maintenance and reveals how it relates to the heading.

All the technical jargon collections subject to maintenance were converted into Excel format, and micro-structured information was rearranged according to a certain order and processed in a

n automatic or manual form to have a uniform formal value in the computerized database division of the expertise collection. After that, after loading each jargon book into the 「Terminology Construction System」, the original language input work such as Chinese characters and English was performed, the word type display work based on this, the form and definition of the term were considered, and the notation and spacing of the heading were checked and sup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of the language information writing and maintenance guidelines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Key-words: terminology, terminology maintenance, computerized database, 「Terminology Construction System」, heading, original language, definition, field classification, use examples, related terms, construction form and meaning matching information

【요약문】

□ 과제명: 2023년 분야별 용어 정비

□ 과제 목표: 그간 독자적이거나 산발적으로 만들고 집적하여 이용해 온 용어 자료를 국립국어원의 「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정비하고 보완하여 용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언중들의 용어 사용의 편의성과 효용성을 높이하고자 함.

- ① 『사회 재난 핵심 용어집』, 『영한중 지식 재산권 용어 사전』, 『산업 자원 용어 약어 해설집』, 『통상 관련 용어집』, 『해외 투자 용어 사전』, 『식품 첨가물 용어집』, 『기구 용기 포장·식의약품 용어집』, 『발전 용어집』에 실린 12,597개 용어에서 정비 대상 용어를 고르고 표제어, 원어, 분야 분류, 정의문, 사용 예시, 관련 용어 정보를 갖춘 1만 개 이상의 용어를 정비함.
- ②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서 공개된 전문 용어집을 대상으로 7종 이상을 전산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용어 구축 시스템」에 탑재하여 용어의 표기, 원어, 일치어 등 기본 정보를 정비함.

□ 과업 수행 내용

(1) 용어 정비

- ① 용어 선정: 『사회 재난 핵심 용어집』, 『영한중 지식 재산권 용어 사전』, 『산업 자원 용어 약어 해설집』, 『통상 관련 용어집』, 『해외 투자 용어 사전』, 『식품 첨가물 용어집』, 『기구 용기 포장·식의약품 용어집』, 『발전 용어집』에 실린 12,597개 용어 가운데 정비 대상 용어를 선별함.
- ② 용어 정비: 표제어, 원어, 분야 분류(국가 과학 기술 표준 분류 체계), 정의문, 사용 예시(용례), 관련 용어에 걸쳐서 정비함.
- ③ 분야별 감수: 전문 분야 감수(용어의 내용 및 분야 분류)
- ④ 종합 검토 실시로 미시 구조 내의 정보의 일관성과 균질화를 추구함.

(2) 전문 용어집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 ①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대상 전문 용어집을 선정하고,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지침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데이터를 구조화함.
- ② 「용어 구축 시스템」에 탑재하여 표제어, 원어, 일치어 정보 등을 정비하는 방식으로 과업을 진행함.

□ 용어 정비 지침: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한 지침을 기본으로 하되, 연구진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지침을 보조적으로 사용함. 국립국어원과의 협의를 하여 정비 지침을 보완하고 보완된 바에 따라서 정비 내용을 수정함.

□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구축 지침: 연구진에서 지침을 만든 후에 국립국어원의 검토를 받아 세부 내용을 보완하여 완성함.

□ 정비 과업 실시 내용

(1) 용어 정비

① 정비 용어의 개수: 『사회 재난 핵심 용어집』에서 1,694개, 『영한중 지식 재산권 용어 사전』에서 1,386개, 『산업 자원 용어 약어 해설집』에서 1,398개, 『통상 관련 용어집』에서 550개, 『해외 투자 용어 사전』에서 352개, 『식품 첨가물 용어집』에서 718개, 『기구 용기 포장·식의약품 용어집』에서 118개, 『발전 용어집』에서 3,902개를 정비하여 모두 10,118개 용어를 정비 완료함.

② 표제어 정비: 로마자, 아라비아 숫자 등이 포함된 것을 모두 한글로 바꾸어 표기하고 규범에 맞게 제시하도록 하였음. 구 이상의 성격을 지니는 것들은 구성 요소 사이에 띄어쓰기를 하고 ^으로 경계를 표시함.

③ 원어 정비: 표제어가 고유어로만 이루어진 경우는 원어 정보 칸을 비워 두고, 한자어와 혼종어 속에 포함된 고유어 연쇄의 경우에는 『우리말샘』의 처리에 따라 모두 붙여서 제시하였음. 인구어 등에서 온 것으로 로마자인 경우는 소문자로 쓰는 원칙에 따라 표시하되, 고유 명사이거나 독일어인 경우에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써서 표시함. 이때 고유 명사의 경우는 원어 정보를 안 밝힘으로 처리하였음.

④ 정의문 정비: 기구축 자료의 정의문을 최대한 활용하여 작업하되, 기구축 자료에 정의문이 없을 경우에 만일 해당 용어가 『우리말샘』이나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린 경우라면 이곳의 정의문을 참고하여 활용하는 식으로 정비함. 특히 “하나의 용어는 하나의 개념을 표상한다.”는 기본 지침에 따라 “~A. 또는 B.”와 같이 뜻풀이가 된 것들은 분리하여 별개의 표제어로 용어를 집필하여 제시함.

⑤ 분야 분류: 용어의 의미, 계열어, 관련 용어의 분야 분류를 참고하여 국가 과학 기술 표준 분류 체계에 따라서 전문 분야를 판정함.

- ⑥ 사용 예시 제시: 뉴스 기사, 정부 보도자료, 정부 발행 보고서, 학술 논문, 학술 서적, 특허 문서 등의 검색을 통하여 사용 예시를 확보하여 제시함. 표제어의 의미와 품사 정보에 걸맞은 사용 예를 찾아서 예시로 제시함. 사용 예시는 9,083개의 표제어에 제시되어 구축 비율은 약 90%에 달함.
- ⑦ 관련 용어 구축: 정비 대상이 되는 표제어와 관련된 용어들을 제시하고 이것이 표제어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보이는지를 드러내었음.

(2) 전문 용어집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 ① 쉽게 고친 문화재 용어 자료집(민속학 미술사 용어 해설)에서 506개, 「쉽게 고친 문화재 용어 자료집(건축사 고고학 용어 해설)」에서 684개, 「알기 쉬운 농업 용어집」에서 402개, 「국가 건설 기준 용어집(개정증보판)」에서 4,313개, 「2021년 기준 로봇산업 실태 조사」에서 211개, 「2016년도 퇴직연금 금융 용어 정보」에서 360개, 「국제 환경 협상 용어집 A to Z」에서 649개 등 모두 7,125개의 용어를 전산 데이터베이스화함.
- ② 정비 대상이 되는 전문 용어집을 모두 엑셀 형태로 변환하고 미시 구조의 정보를 일정한 질서에 따라 재배열하고 균일한 형식적 값을 갖도록 자동 또는 수동 형태로 처리함.
- ③ 「용어 구축 시스템」에 용어집별로 탑재를 한 후에 한자, 영어 등의 원어 입력 작업, 이를 바탕으로 한 어종 표시 작업, 용어의 형태와 정의문을 고려하여 일치여 연결 작업을 실시함.

□ 외부 전문가 검토 실시 내용

- ① 전문 분야 전문가: 전기공학 전문가 1명, 식품공학 전문가 1명, 지식 재산권법 전문가 1명에게 각각 3,194개, 834개, 1,317개와 같이 모두 5,345개를 내용 검토를 받고 검토 결과를 정비 내용에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정비 결과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였음.
- ② 국어사전 전문가: 전문 용어집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구축의 원어 정보 검토와 입력을 하는 데에 국어사전 전문가 3명에게 작업을 의뢰하여 실시함.

□ 차 례 □

1. 정비 사업 개요	1
1.1. 정비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1
1.1.1. 정비 목적	1
1.1.2. 정비 필요성	2
1.2. 정비 범위	4
1.3. 정비 방법	5
1.3.1. 용어 정비	5
1.3.2.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8
2. 정비 대상 용어,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선정 및 정비 지침	11
2.1. 용어 선정	11
2.1.1. 정비 대상 원자료집의 실태 및 기본적 정비 방향	11
2.1.2. 정비 대상 용어 선별 기준과 절차	15
2.2.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대상 자료집 선정	16
2.3. 용어 정비 지침의 수립	17
2.4.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지침의 수립	23
3. 정비 과업 진행 절차	25
3.1. 용어 정비	25
3.1.1. 기구축 자료 검토, 정비 대상 용어 선정	25
3.1.2. 정비 지침 보완	26
3.1.3. 용어 배분	30
3.1.4. 용어 집필	35
3.1.5. 연구진 내 용어 검토 및 보완	46
3.1.6. 전문가의 검토, 연구진의 검토 결과 반영	48
3.2. 전문 용어집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51
3.2.1.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대상 자료 선정	51
3.2.2.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지침 작성	52
3.2.3.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배분 및 수행	56
4. 정비 과업 수행 결과	59
4.1. 용어 정비	59
4.1.1. 정비 완료 현황 및 통계	59
4.1.2. 표제어 및 원어 정비	62
4.1.3. 전문 분야 분류	69

4.1.4. 정의문 정비 및 보완	69
4.1.5. 사용 예시 구축 및 보완	73
4.1.6. 관련 용어 구축	74
4.1.7. 대역어 구축	75
4.2.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78
4.2.1.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완료 현황 및 통계	78
4.2.2. 표제어 정비	79
4.2.3. 원어 및 일치어 정비	80
4.2.4. 기타 표제항의 정비	81
5. 결론	83

표 차례

<표 1> 정비 대상 원자료 개관	11
<표 2> 용어집별 정비 대상 용어의 선정 개수	16
<표 3>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대상 자료 개요	17
<표 4>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예시	24
<표 5> 보조 연구원 작업 목표 배분표	31
<표 6> 공동 연구원과 보조 연구원의 팀 구성 및 팀별 담당 항목 개수	34
<표 7> 외부 내용 전문가 검토 관련 정보	48
<표 8>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대상 선정 자료 목록	52
<표 9> 연구원별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수행 내용	57
<표 10> 분야별 정비 완료 용어의 개수	59
<표 11> 정비 완료 용어의 국가 과학 기술 표준 분류 체계에 따른 분류 결과	61
<표 12> 대상 용어 및 검색용 이형태 정비	63
<표 13> 현장에서 쓰이는 용어의 형태와 차이가 있는 용어의 정비	64
<표 14> 표제어의 원어 정보 정비	65
<표 15> 원자료집에 누락된 원어 정보의 정비	66
<표 16> 원자료집의 불완전한 원어 정보의 정비	67
<표 17> “①~. ②”, 또는 “1.~ . 2.” 형식의 정의문의 분리 기술	70
<표 18> 정의문의 표현 또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의 정비	71
<표 19> 정의문 내용의 부정확함이나 오류를 보완한 정비	72

<표 20> 관련 용어 구축의 예	75
<표 21> 오타 및 철자 누락 정비	76
<표 22> 대역어 구성 요소 교체	76
<표 23> 대역어 구성 요소의 추가	77
<표 24> 대역어의 전면 교체	77
<표 25>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완료 자료별 용어의 개수	78
<표 26>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표제어 정비 예시	79
<표 27>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원어 정보 정비 예시	81
<표 28>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기타 정보 정비 예시	82

그림 차례

[그림 1] 「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분과원 등록하여 역할 설정하기	32
[그림 2] 「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집필자의 활동 분과 확인하기	32
[그림 3] 「용어 구축 시스템」 집필자 작업창	33
[그림 4] 『발전 용어집』 전문가 검토	49
[그림 5] 『영한중 지식 재산권 용어 사전』 전문가 검토	50
[그림 6] 『식품 첨가물 용어집』 전문가 검토	50
[그림 7]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목록 선정 단계	51
[그림 8]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수행 단계	56

1. 정비 사업 개요

1.1. 정비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1.1.1. 정비 목적

이 연구는 그간 각 분야별로, 기관별로 독자적으로 만들거나 산발적으로 만들어 집적하였거나 이용해 온 용어 자료를 국립국어원의 「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보완하여 용어가 적절히 유통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로써 산재해 있는 용어 자료를 「용어 구축 시스템」에 모아 통합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하고 보존하도록 하고, 이렇게 한 결과를 언중들이 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언중들의 용어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용어의 효용성을 높이하고자 한다.

이런 목적에서 이번 연구에서 정비할 대상이 되는 용어는 『사회 재난 핵심 용어집』, 『영한중 지식 재산권 용어 사전』, 『산업 자원 용어 약어 해설집』, 『통상 관련 용어집』, 『해외 투자 용어 사전』, 『식품 첨가물 용어집』, 『기구 용기 포장·식의약품 용어집』, 『발전 용어집』에 실린 12,597개를 대상으로 한다. 이 용어들을 대상으로 ① 원어, ② 정의문, ③ 분야 분류, ④ 사용 예시, ⑤ 관련 용어에 관한 정보를 충실히 갖추도록 하고 언중들의 눈높이에 맞게 정비하고 보완한다.

다음으로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서 공개된 비전자화 형태로 되어 있는 전문 용어집을 대상으로 7종의 용어집을 선정하여 구조화하여 「용어 구축 시스템」에 탑재하고, 용어의 기본 항목을 정비한다.

정비 작업은 국립국어원의 「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수행한다. 용어 정비 작업의 결과로 표제어, 원어, 정의문, 분야 정보, 사용 예시, 관련 용어 모두에 걸쳐서 정비 지침에 따라 정확히 표기되고,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정보를 누락됨이 없이 정확하고 적절히 갖춘 용어를 10,000개 이상 산출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용어 정비가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언중들은 균질한 상태의 용어 정보를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전문적인 지

식을 기술하고 유통하는 데에 사용되는 용어의 이해와 이용에서 겪었던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된다. 그 결과로 무엇보다도 용어가 공적 언어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갖추고 본연의 기능인 소통력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과업에서는 그간 용어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전문 용어집을 대상으로 공공성, 공익성, 자료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비 대상을 선정하고, 「용어 구축 시스템」의 용어의 표기 정보, 원어 정보 등에 맞게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이미 정비되어 있는 상태인 용어와의 일치 관계 정보를 구축함으로써 상당한 수준의 용어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로써 분야별 용어 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고 각종 용어에 대한 언종의 검색 수요에 부응하도록 한다.

1.1.2. 정비 필요성

이번에 수행하는 용어 정비 사업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공공어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전문 분야의 용어를 다듬어 언종의 이해 및 사용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요즘 사회는 인터넷 등의 통신망을 통하여 사람들 사이에 복잡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고 이런 통신망에서 온갖 내용과 정보들이 널리 공유되는 소통의 시대이자 지식의 시대이다. 이런 소통망에서 다루어지는 이야기들은 주제와 범위가 굉장히 방대하고 전문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포함된 성격을 지닌다. 이에 언종이 접하지 못했거나 알지 못하는 용어의 사용이 빈번히 나타난다.

이처럼 다원화되고 전문화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상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는다. 그런 점에서 여러 세계를 알아두어야 할 필요성이 언종들에게 적지 않다고 하겠다. 이번 정비 대상이 되는 사회 재난, 지식 재산권, 산업 자원, 통상, 투자, 식의약품, 발전과 관련된 용어는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이에 관한 용어 정비가 현실적으로 요청되는 바이다.

두 번째로 이번 정비 대상이 되는 용어 중에는 전문 용어의 특성을 지

니는 것도 많지만 전문 용어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언중들 다수가 같이 이해하고 사용하는 공공 용어로 쓰이게 된 경우가 무척 많아지게 되었다. 즉 시대적 흐름에 맞게 전문 용어의 일반어화가 널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일반어와 전문 용어를 용어 의미와 사용 분야를 매개로 하여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이해하는 것은 정보 및 지식의 이해와 생산이란 면에서 모두 중요성을 지닌다.

세 번째로 언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전문 분야에서 쓰이는 용어를 정비 및 보완을 하여 언중들의 언어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한국어 언중들이 정보의 불균형을 겪지 않고 공공 부문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 사회 전체의 정확하고도 효과적인 소통이 기약될 수 있다.

국제화, 다문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소통의 도구로서 우리 말이 제 구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여러 전문적인 정보가 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넘나들고 이와 관련되는 지식이 계속 생산되고 소비되는 시대에,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우리말로 쉽게 이해하고 정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말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 하겠다.

네 번째로 지속적인 용어 정비를 위하여는 여태까지 정비를 수행한 것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분야의 용어를 새롭게 정비해야 할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그간 국립국어원에서 정비를 실시한 용어집들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용어집 가운데에서 정비의 필요성이 있고 정비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초점을 맞추어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된 용어집을 중심으로 정비 대상 후보 용어집을 선별하고 「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바로 정비 작업을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용어집을 데이터베이스화해 두는 것이 요청된다.

1.2. 정비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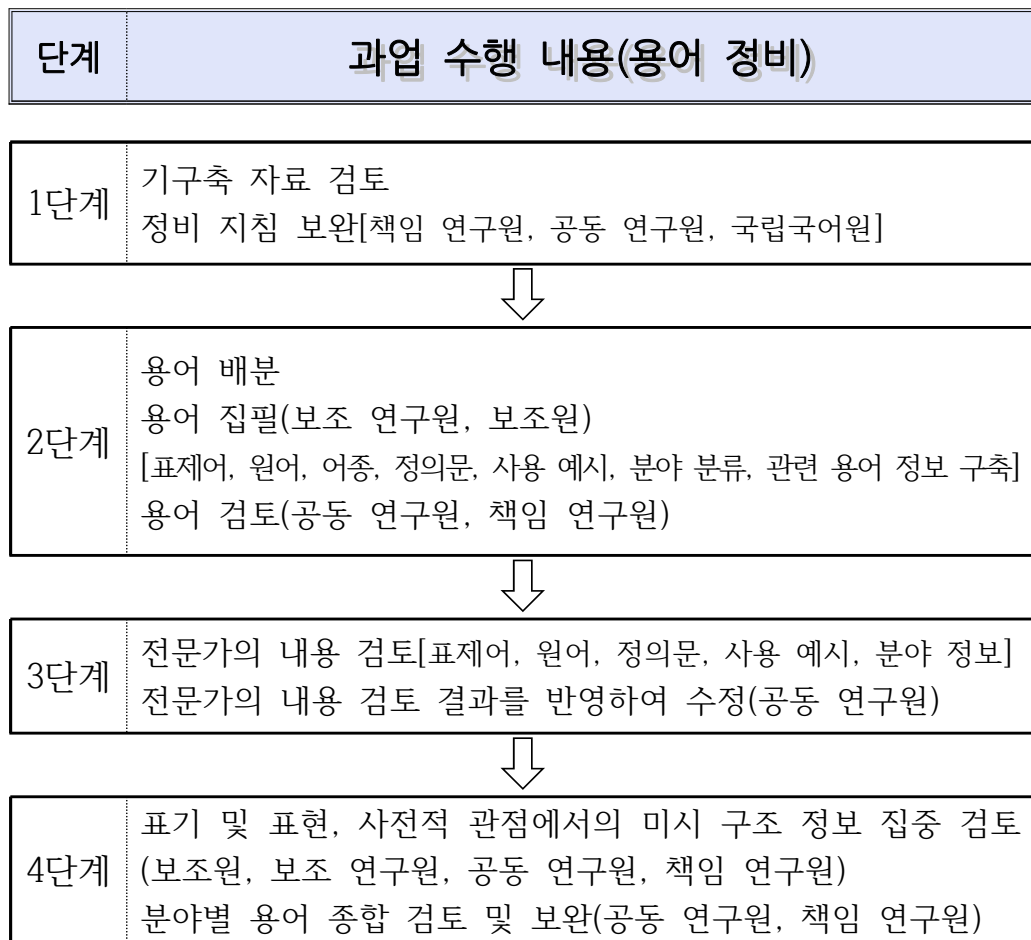
위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진에서 수행할 과업의 연구 범위와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 (1) 공공데이터포털 내 용어집 중 국립국어원 선정 용어집의 용어 정비
 - ① 『사회 재난 핵심 용어집』, 『영한중 지식 재산권 용어 사전』, 『산업 자원 용어 약어 해설집』, 『통상 관련 용어집』, 『해외 투자 용어 사전』, 『식품 첨가물 용어집』, 『기구 용기 포장·식의약품 용어집』, 『발전 용어집』에 실린 용어를 대상으로 정비 수행
 - ② 국립국어원에서 요구하는 미시 구조 정보를 모두 갖춘 항목 1만 개 제출
- (2) 용어가 갖추어야 할 필수 항목의 일관성 및 균질화 지향 정비
 - ①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정비 지침에 따라 정비 및 보완 실시
 - ② 원어, 정의문, 분야 정보, 사용 예시, 관련 용어 정보의 수정, 보완
 - ③ 연구진 내 상호 검토, 자문 위원 활용 검토 및 보완으로 일관성 및 균질화 지향
- (3) 「용어 구축 시스템」을 이용한 용어 정비
 - ① 「용어 구축 시스템」을 이용한 단계별 정비를 순차적으로 입체적으로 실시
 - ② 「용어 구축 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비 작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 ③ 「용어 구축 시스템」에 갖추어져 있는 메모 기능 등 각종 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용어 정비의 정확성 및 적절성 고양
- (4) 용어의 공공성에 걸맞은 적정 수준의 난이도 여부 판단
 - ① 언중이 폭넓게 공유하는 용어의 성격에 걸맞게 대중성을 갖도록 정비 및 보완
 - ② 내용의 정확성을 유지하며 용어가 지녀야 할 공공성을 담도록 정비 및 보완
 - ③ 공공 언어, 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 관점을 종합하여 용어 난이도 적정성 판단
- (5) 지속적 용어 정비 환경 조성을 위한 용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 ① 그간 데이터베이스화되지 못하였고 내용 구조에서 편차가 컸던 용어집을 구조화하여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 ② 한글, PDF, DOC(DOCX) 형태로 된 용어집 중 7종을 전산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용어 구축 시스템」에 탑재하여 용어 정비 지침에 맞게 해당 정보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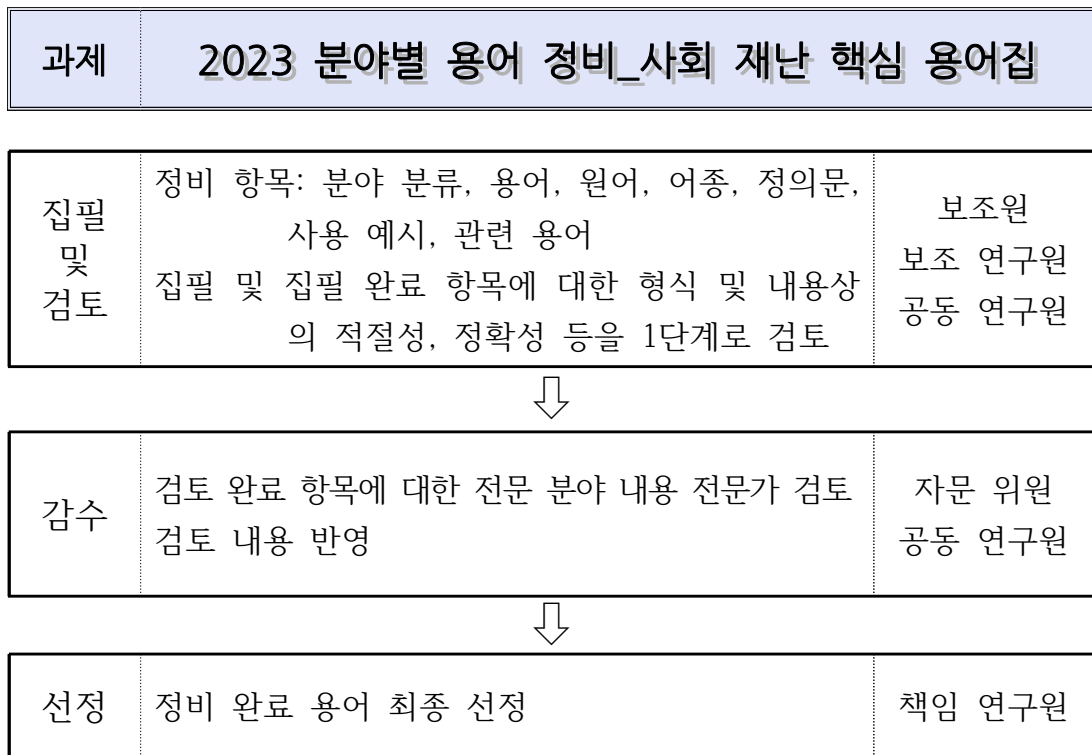
1.3. 정비 방법

1.3.1. 용어 정비

분야별 용어 정비를 위한 작업은 4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며 모든 단계의 과업은 국립국어원의 「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수행한다.



이에 따라 「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용어집별로 “과제”를 설정하여 아래의 그림과 같이 분과 활동을 수행한다(과제는 『사회 재난 핵심 용어집』을 대상으로 가정). 분과는 ‘집필 및 검토 분과’, ‘감수 분과’, ‘선정 분과’의 3개 분과로 작업 단계를 나누어 작업을 최적화하여 관리한다.



각 단계별 수행 절차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과제 생성과 집필 대상 자료 분배

원활한 작업 수행을 위하여 모든 작업자는 「용어 구축 시스템」에 가입한다. 그러면 관리자는 분과원들의 역할에 따라 ‘집필’, ‘검토’ 권한을 설정한다. 정비 대상 용어로 선정한 어휘는 「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보조 연구원, 보조원이 기초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집필자로 설정하여 배분한다.

2) 정비 대상 용어 집필

용어 집필은 국립국어원의 집필 지침에 따라서 실시한다. 사용 예시가 갖추어진 정비 결과물이 납품 목표 용어 개수 대비 9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본 연구진에서는 사용 예시를 찾을 수 있는 것을 우선적인 정비 대상으로 설정한다. 집필자들은 표제어의 분석 및 보완, 표기 표현 검토·보완, 원어 정보 검토 및 정비·보완, 정의문 검토·보완, 사용 예시 검토·보완을

담당하고 공동 연구원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용어 정비를 진행한다.

3) 집필 완료 용어 검토

검토자는 집필 완료 항목에 대해 ‘검토 완료’와 ‘보완 요청’을 한다. ‘보완 요청’의 경우 집필자가 확인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메모를 하고 확인 단추를 누른다. 이 과정을 거쳐 ‘1단계 검토 완료’가 되면, 다음 단계인 감수 분과로 이동을 할 수 있다.

4) 내용 분야별 전문가 검토

공동 연구원의 검토가 완료된 용어는 전문가 내용 검토의 대상이 된다. 내용 검토를 할 전문가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은 엑셀로 출력된 정비 결과물을 가지고서 용어의 형식과 내용적인 면에서 검토를 진행한다. 이렇게 하여 검토가 완료된 용어는 공동 연구원이 감수 단계로 설정되어 있는 용어를 검색하여 적절히 반영한다.

5) 표기 및 표현, 사전적 관점에서의 미시 구조 정보 집중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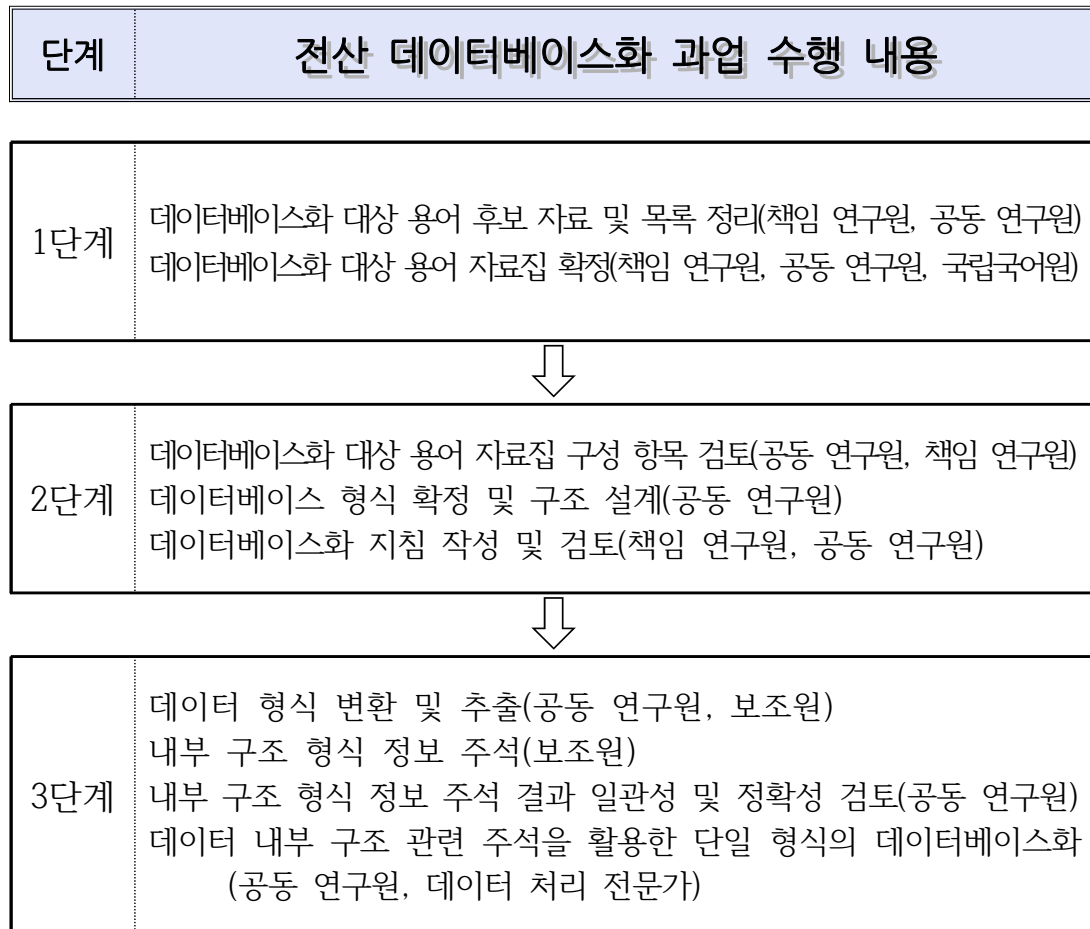
보조 연구원 및 보조원은 엑셀로 내려받은 정비 결과물을 가지고서 표제어, 원어, 어종, 정의문, 사용 예시, 관련 용어, 분야 분류 등으로 나누어 표기와 표현, 정보 제시 형식이 지침에 맞게 일관성과 균질성과 정합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것들을 기입한다. 그런 후 이를 공동 연구원 및 책임 연구원에게 전달하여 해당 용어별로 수정 및 보완 할 내용이 「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반영되도록 한다.

6) 정비 완료 용어 최종 선정

공동 연구원 및 책임 연구원이 수정 및 보완한 용어들을 대상으로 책임 연구원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수행하고 미비된 사항을 점검하여 보완한 후에 요건을 충족한 것들을 선정 용어로 삼도록 한다.

1.3.2.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전산 데이터베이스화는 아래의 과업을 단계별로 진행하여 비구조화된 자료집을 구조화하여 「용어 구축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것이다.



각 단계별 수행 절차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베이스화 대상 용어 자료집 확정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대상 자료집 목록 선정의 우선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충족한 것들을 대상으로 국립국어원과 협의하여 대상 자료집을 결정하여 전산 데이터베이스화한다.

- (1) 공공성: 자료집 구축 및 공적 활용의 의의를 살릴 수 있는 자료집
- (2) 자료집 항목의 충실성: 표제어, 용어 해설, 원어 등의 표제항 정보가 충실하게 수록된 자료집
- (3) 저작권 문제 해결: 2차 저작물 활용 및 배포가 가능한 수준으로 저작권 확보가 가능한 자료집

2) 데이터베이스화 지침 작성

개별적인 데이터베이스화 대상 용어 자료집별로 상이한 정보 항목 현황을 확인하고 구성 항목을 분석하여 용어 정비 사업의 표제항과 대응되는 정보 항목과 그렇지 않은 정보 항목을 구분하여 개별 주석 대상의 정보 항목에 대한 개체를 한정하여 문서의 구조를 설계한다. 이 단계에서 작성되는 지침을 바탕으로 한 주석은 대체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므로 주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가능한 한 주석 작업자의 용이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3) 정보 항목 주석 및 데이터베이스화

아래아 한글, 엠에스 워드, 피디에프 등의 형식의 자료집 데이터에서 정보 항목을 추출하여 구조화된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은, ① 텍스트 추출 과정, ② 추출된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주석 작업, ③ 주석 정보를 바탕으로 한 최종 데이터베이스화의 세 가지 과정으로 구성된다.

최종적인 데이터베이스화의 단계에서 구현될 데이터베이스 형식은 국립국어원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국립국어원과 협의한 바에 엑셀 형식의 스프레드 시트 등의 방식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화를 시행한다.

2. 정비 대상 용어,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선정 및 정비 지침

2.1. 용어 선정

2.1.1. 정비 대상 원자료집의 실태 및 기본적 정비 방향

이번 과업에서 정비 대상이 된 용어가 담긴 원자료는 모두 8개이며, 이들에 실린 용어는 12,597개이다. 자료집 제공 기관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것이 2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것이 2개, 행정안전부, 통계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서부발전의 것이 각각 1개씩이다. 정비 대상 원자료집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표 1> 정비 대상 원자료 개관

원자료명	제공 기관	용어 수	세부 구축 정보
사회 재난 핵심 용어집	행정안전부	1,971	용어, 영문명, 용어 설명
영한중 지식 재산권 용어 사전	통계청	1,624	용어, 영문명, 한자, 용어 설명
산업 자원 용어 약어 해설집	산업통상자원부	1,596	용어, 영문(약어), 용어 설명
통상 관련 용어집	산업통상자원부	681	용어, 영문명, 설명
해외 투자 용어 사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03	용어, 원어(영문, 한자), 용어 설명
식품 첨가물 용어집	식품의약품안전처	829	용어, 외국어 용어 설명, 관련어 출처
가구 용기 포장·식품의약품 용어집	식품의약품안전처	188	용어, 외국어 용어 설명, 관련어 출처
발전 용어집	한국서부발전	5,105	용어, 용어 해설
용어의 총 개수		12,597	

위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원자료집에 실린 용어들에 달린 정보

를 보면 용어 설명은 대체로 잘 제시된 면을 보이거나 원어 정보 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많고, 사용 예시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그렇기에 이와 같이 정보 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정보를 찾아 제시할 필요가 있고, 정보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비 지침에 맞게 정확성을 유지하면서도 적절히 정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현황 파악에 바탕을 두고, 본 과업에서는 각 자료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일관성이 있는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용어 정비의 전체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표제어 및 원어

- ① 로마자, 아라비아 숫자 표기: 한글 표기로 바꾸고 로마자와 아라비아 숫자 표기는 원어 또는 검색용 이형태로 입력한다.
- ②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맞춤법 관련 내용을 정비한다.
- ③ 외래어 표기법: 정비 대상 용어 가운데에는 외래어로 간주되는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들이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서 적절히 표기된 것 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때 이 가운데에는 관용 표기를 허용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용어의 도입 및 사용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다. 원자료에 대상 용어가 규범 표기, 비규범 표기로 모두 제시된 경우 규범 표기를 대상 용어로 삼고, 비규범 표기나 관용 표기는 ‘검색용 이형태’에 입력한다.

② 정의문

- ① 기구축 자료에 백과사전적 정보가 실려 있는 경우에는 『우리말샘』에 제시되어 있는 방식으로 언어적 정의를 먼저 내린 후에 백과사전적 정보를 뒤에 부연의 형식으로 제시한다. 이를 통하여 일반적 정의가 먼저 제시되고 난 후에 특수한 정의가 더해져서 용어의 다양한 쓰임을 볼 수 있도록 한다.
- ② 기구축된 자료의 정의문이 단어 또는 구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경우 단어 또는 구의 정의를 참고하여 이에 해당하는 정의를 내리도록 한다.
- ③ 번호를 매겨 제시된 기구축 정의문은 번호를 삭제하고, 두 번째 이하의 정

의문은 정의문의 개수만큼 표제어를 새로 만들어서 별개의 표제어에 해당하는 정의문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④ 표제어의 품사 정보에 맞게 정의문을 작성한다.
- ⑤ 표제어 또는 표제어 구성 요소가 동일한 형태가 가능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한다.
- ⑥ 정의문을 끝맺을 때에는 반드시 마침표(.)를 찍어 정의문의 기술이 완료되었음을 표시한다.
- ⑦ 띄어쓰기 등 맞춤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수정하거나 보완한다.
- ⑧ 정의문 안에 쓰인 한자어, 외래어 등을 한글로 표기하였을 경우에 뜻을 알기 어려우면 괄호 안에 원어 정보를 병기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 ⑨ 기구축 자료에 정의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정의문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각종 용어 사전이나 백과사전이나 『우리말샘』이나 법령의 내용 등을 두루 참고하여 작성한다. 이때 표절 및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분야 정보

- ① 정비 대상이 되는 모든 용어들은 원자료에 구축되어 있는 정의문의 내용과 유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국가 과학 기술 분류 체계의 대분류와 중분류를 표시하도록 하며,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 내용 전문가의 감수를 거쳐 정확한 분류를 도모하도록 한다.
- ② 정의문의 내용만으로 분야 정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어, 대역어, 사용 예시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가며 판단하도록 한다.
- ③ 국가 과학 기술 분류 체계의 대분류와 중분류만으로 용어의 전문 분야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소분류까지를 검토하여 봄으로써 정확한 전문 분야를 판단하도록 한다.
- ④ 표제어의 형태만을 가지고 분야를 판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용어가 한 분야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각기 다른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가 널리 나타나서이다. 따라서 의미를 기준으로 삼고, 계열어 및 관련 용어들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분야를 판단한다. 전문가의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에 전문가에게 검토를 청하도록 한다.
- ⑤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한 「용어 통합 데이터베이스 전문 분야 분류 지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년 국가 과학 기술 표준 분류 체계 해설서」를 가까이 두고 잘 참고하며 분야 분류의 자의성을 줄이고 일관성 있게 하며, 지침은 늘 가장 최신의 것을 활용하며, 지침의 내용이 수정·보완된 경우에는

이전에 작업한 내용을 지침에 맞게 수정하도록 한다.

⑥ 계열어 및 관련 용어 사이에 분야 분류가 모순되게 이루어지지 않게 한다.

4 사용 예시

① 사용 예시 구축은 정비 대상 용어의 실제 의미를 바탕으로 대표적인 사용 환경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용어 정비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번 2023년도에 정비 대상이 되는 용어 자료집의 모든 용어에는 사용 예시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이러한 상황에서, 대상 어휘가 적절한 문맥에서 사용된 예시를 최대한 많이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단계적이며 효과적인 자료 수집 체계를 구축하여 사용 예시 구축의 양적·질적 수준을 높이도록 한다.

가. 사용 예시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사용 예시 검색 시 다음과 같이 우선 순위를 설정한다.

- (1) 신문, 뉴스 자료(구글,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 종합 검색)
- (2) 관련 부처 발간 자료(각종 자료집, 보도자료, 공문)
- (3) 여러 법령에서의 사용 예(국가 법령 정보 센터에서 검색)
- (4) 관련 분야 논문 자료(RISS, KCI, SCIENCE ON 등에서 검색)
- (5) 말뭉치 자료
- (6) 전문 용어 사전

나. 피디에프 자료를 대상으로 검색을 할 경우에는 검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여러 피디에프 파일의 통합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각종 검색 도구(프로그램)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 (1) PDF-Xchange Viewer
- (2) Acrobat Reader
- (3) SeekFast
- (4) Foxit Reader
- (5) UltraFinder

③ 사용 예시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균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공유하여 예시를 선별하여 구축한다.

- (1) 용어의 정의, 용도, 사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선별한다.

(2) 사용 예시는 기본적으로는 문장 단위로 제시한다. 다만 문장으로 된 사용 예시 확보가 되지 않고 구 단위 사용 예시만이 확보되는 상황에서는 구 단위 사용 예시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3) 사용 예시 입력 시 국어 어문 규범에 맞게 수정하여 등록한다.

⑤ 관련 용어 정보

- ① 관련 용어는 정비 대상이 되는 표제어와 관련된 용어인데, 이에는 의미와 분야 분류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 ② 일치어를 연결할 때에는 용어의 형태, 정의가 모두 동일해야 함을 주의한다.
- ③ 관련 용어를 보완할 때에는 기존에 관련 용어가 제시된 경우에도 표제어와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1.2. 정비 대상 용어 선별 기준과 절차

이번 정비 대상 용어의 기구축 자료집은 전체 12,597개로 정비 과업 목표 수량 10,000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구축 용어를 작업 대상으로 최대한 선정하고자 하였다. 정비 항목을 충실히 보완하기 위하여 용례가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대상 용어를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다만 『발전 용어집』에 실려 있는 ‘Structured^Query^Language’, ‘Ton^of^Refrigeration’, ‘Vehicle^to^Grid’나 『사회 재난 핵심 용어집』의 ‘External^Load^Related’와 같이 영어 원어로만 된 표제어는 제외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구축 자료집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비 대상 용어를 선별하였다. 기구축 자료집을 살피고 우리의 삶 및 생활 환경과 관련도가 높은 것, 전문 분야에 해당하는 것을 선별하고 같은 조건이라면 용어 정보가 충실하게 제시되어 있는 것들을 우선적인 정비 대상 용어로 선정하였다. 최초 선정 용어는 11,045개였으나 표제어 분리가 필요한 용어를 신규 구축하였고, 과업 달성을 위해 추가 선정한 용어를 포함하여 최종 정비 대상 용어는 12,171개였다.

〈표 2〉 용어집별 정비 대상 용어의 선정 개수

	기구축 용어집명(수록 용어 개수)	→	최종 정비 대상 용어 개수
1	『사회 재난 핵심 용어집』(1,971개)	→	1,873개
2	『영한중지식재산권용어사전』(1,624개)	→	1,562개
3	『산업 자원 용어 약어 해설집』(1,596개)	→	1,594개
4	『통상 관련 용어집』(681개)	→	684개
5	『해외 투자 용어 사전』(603개)	→	550개
6	『식품 첨가물 용어집』(829개)	→	800개
7	『기구 용기 포장·식의약품 용어집』(188개)	→	189개
8	『발전 용어집』(5,105개)	→	4,919개
	합계		12,171개

2.2.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대상 자료집 선정

여태까지의 국립국어원의 용어 정비의 과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집을 선정하여 전산 데이터베이스화를 수행하는 것은 지속적인 용어 정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따라 워드 프로세서, 피디에프, 정제되지 않은 엑셀 등의 형태로 된 전문용어집 데이터 중 7종을 선정하여 국립국어원 「용어 구축 시스템」의 데이터 구조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공 데이터 포털(<https://www.data.go.kr/>) 및 공공 기관 누리집 등의 경로에서 확인되는 전문용어집 검색을 통해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1차 후보 목록을 작성하였다. 1차 후보 목록은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한 데이터베이스 이관 현황과 비교하여 기구축 여부를 확인하고, 전문 영역 안배 및 용어 항목수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국립국어원과 협의하여 2차 후보 목록을 작성하

였다. 이후 저작권을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개별 기관 확인 과정과 협의 과정을 거쳐 아래와 같이 7종의 최종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목록을 확정하였다.

<표 3>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대상 자료 개요

	자료명	예상 용어 수	저작권 관리 기관
1	쉽게 고친 문화재 용어 자료집(민속학 미술사 용어 해설)	672	문화재청
2	쉽게 고친 문화재 용어 자료집(건축사 고고학 용어 해설)	504	문화재청
3	알기 쉬운 농업 용어집	1,205	전라남도청
4	국가 건설 기준 용어집(개정증보판)	4,23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5	2021년 기준 로봇산업 실태 조사	500	한국로봇산업진흥원
6	2016년도 퇴직 연금 금융 용어 정보	363	중소기업은행
7	국제 환경 협상 용어집 A to Z	620	환경부
합계		8,103	

2.3. 용어 정비 지침의 수립

연구진에서는 용어 정비 작업의 지침으로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한 지침을 활용한다. 이 지침은 ‘기본 지침’과 ‘항목별 세부 지침’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 지침’은 이 정비 사업이 지향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고, ‘항목별 세부 지침’은 미시 구조에 들어갈 내용이 따라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 지침에서 용어 정비에서 미시 구조 범주별로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래와 같다.

① 용어 등록

1. 용어의 띄어쓰기: 용어의 띄어쓰기가 원자료집과 『우리말샘』이 다를 경우에는 『우리말샘』의 처리를 따른다. 『우리말샘』에 등재된 말이 아니라면 원자료집에 따르되, 원자료집에 구로 제시된 경우에는 ^을 이용하여 반드시 띄어서 표시한다.
2. 외래어 띄어쓰기: 『우리말샘』에 없는 외래 용어의 띄어쓰기는 원어의 띄어쓰기를 따른다. 이때 띄어 쓸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을 허용한다는 의미로 ‘^’ 기호를 사용하여 띄어쓰기를 표시한다.
3. 복합어의 표기: 용어가 『우리말샘』에서 복합어로 제시된 경우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며, 직접 구성 요소의 경계를 표시하는 데에 쓰인 ‘-’는 용어 정비에서는 표시하지 않는다.
4. 외래어 표기
 - ① 국립국어원 누리집의 ‘외래어 용례 찾기’에 제시되어 있지 않고 『우리말샘』에도 규범 표기가 미확정 상태인 것으로 원자료집에 제시된 표기가 유일한 경우 원자료집에 제시되어 있는 표기 형태로 입력한다.
 - ② 원자료집에 미확정 표기가 여럿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장 규범 표기에 가까운 것을 입력하고 나머지 것은 검색용 이형태로 입력한다.
 - ③ 외래어 표기법의 규범성 판단은 국립국어원 누리집의 외래어 표기법 용례를 가장 우선하고 이에 이어 『우리말샘』의 표기를 따른다. 따라서 이 둘의 표기법이 다를 때에는 국어원 누리집의 외래어 표기법 용례를 따른다.
5. 원자료의 한자 정보가 『우리말샘』 등을 참고하여 판단하여 본 결과 잘못된 것이 맞다면 수정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말샘』 등의 원어 정보를 확인하도록 한다.
6. 동일한 표제어를 발견할 경우, 해당 표제어의 정의를 확인한 후 다르게 쓰이면 ‘용어1’, ‘용어2’와 같이 어깨번호를 달고 동형어 표시를 하기로 한다. 이렇게 하여 이들이 한 용어를 분리한 것임을 드러내도록 한다. 그런 후 검토를 거쳐 최종 결과물에서는 어깨번호를 삭제한다.
7. 동일한 표제어가 정의문도 완전히 동일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를 골라 분과 반려 요청을 한다.
8. 원자료에 동의어 두 개가 하나의 대상 용어로 나열된 경우에는 각 용어를 분리하여 각각 별개의 용어로 집필하고, 동의어로 연결한다.

② 분야 분류

1. 분야 분류 작업은 ‘국가 과학 기술 표준 분류 체계 해설서’와 ‘전문 분야 분류 지침’을 토대로 실시한다.
2. 분야 분류는 ‘국가 과학 기술 표준 분류 체계’의 대분류와 중분류만을 표시 대상으로 한다. 이 부분 이외의 분야 분류(정부 기능 분류 체계, 우리말샘 전문 분야)는 입력하지 않는다.
3. 집필 대상 용어의 ‘국가 과학 기술 표준 분류 체계’에 따라 분류를 할 때에, 해당 용어가 『우리말샘』에 실린 경우에는 『우리말샘』의 분류를 잘 참고하여 분야 분류를 하도록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최대한 주관적 판단을 배제한다.

③ 정의문 작성 및 제시

1. 원자료집에 제시된 정의문을 수정하여 작성하는 경우, 참고로 한 사전과 6어절 이상 같아서는 절대 안 된다. 이처럼 다른 전문 사전을 참고할 때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나 『표준국어대사전』이나 『우리말샘』을 참고하고 이용하는 경우는 정의문을 그대로 옮겨 적고 임의로 수정하지 않고 출처를 『표준국어대사전』이나 『우리말샘』으로 넣는다.
2. 원자료의 정의문을 최대한 활용하되, 용어의 개념 이해에 불필요해 보이는 것은 덜어 내도록 한다. 사전의 정의문이 제시되는 틀에 맞추어 용어의 핵심 내용이 잘 표현되고, 유개념과 종차가 잘 드러나도록 정의문을 작성하여 제시한다.
3. 표제어의 품사 정보에 맞게 정의문이 끝나도록 작성한다. 정의문 다음에 부가문이 있을 경우에는 부가문은 반드시 “~다.”와 같이 온전한 서술문으로 끝내도록 한다.
4. 여러 문장으로 정의문을 제시할 경우에 사전적 정의문에 해당하는 첫 번째 문장에 표제어의 핵심적인 의미가 들어가도록 한다. 그리고 정의문에는 표제어 또는 표제어의 구성 요소가 가능한 한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집필한다.
5. 정의문은 반드시 어문 규범에 맞게 표준어를 쓰고 띄어쓰기를 옳게 하여 작성한다.
6. 정의문의 끝에는 반드시 마침표를 찍는다.
7. 하나의 정의문에는 하나의 개념만을 담도록 작성한다. 이에 따라 어떤 표제

어가 여러 개념을 지니는 다의어인 경우에는 개념별로 용어를 추가하여 집필하여 개념의 개수만큼 용어가 집필되도록 한다. 원자료의 정의문이 ①, ② 등의 번호로 구분되어 기술되어 있으나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정의문이 변별되지 않을 정도로 유사하다면 하나는 삭제하도록 한다. 의미가 확실하게 변별될 수 있는 것이라면 별개의 용어로 분리하여 집필하되 두 의미가 실재함을 보이는 사용 예시를 찾아 넣도록 한다. 그게 불가능하다면 사용 예시에서 볼 수 있는 의미에 해당하는 용어만을 집필하도록 한다.

④ 사용 예시 작성 및 제시

1. 사용 예시는 원칙적으로 한 문장만 제시한다. 한 문장만 제시함에 따라 주어나 목적어 등이 빠져서 불완전한 문장이더라도 문장의 틀을 바꾸는 등의 수정을 임의로 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불완전 문장이 제시됨에 따라 문맥 파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어 또는 목적어를 파악할 수 있는 앞 문장이나 뒤 문장을 같이 제시하도록 한다.
2. 사용 예시는, 문장의 형식은 원문대로 하되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것은 규범에 맞게 수정하여 제시한다.
3. 사용 예시는 표제어와 형태가 일치하는 것을 제시한다. 표제어의 형태가 쓰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제어를 구성 요소로 포함하는 복합 형태의 용어가 쓰인 것이라면 표제어와 형태 일치가 일어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용 예시로 제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외적 영향’이라는 표제어의 사용 예시로 ‘외적 영향 분석’, ‘외적 영향 평가’, ‘외적 영향 요소’ 등을 제시하게 되면, ‘외적 영향 분석’, ‘외적 영향 평가’, ‘외적 영향 요소’ 등이 표제어로 처리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의 사용 예시 제시는 삼가도록 한다.
4. 사용 예시를 작성할 때 인명, 지명, 사명 등에 비식별 표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용 예시와 출처 모두에서 일관되게 처리한다.
5. 비식별 표시의 경우 국가 기관이나 공공 기관, 공기업 등의 경우는 부정적인 내용이 아니고 부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을 때 내용 이해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노출할 수 있다. 다만 사기업이나 개인 등의 경우는 민감한 것이므로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6. 사용 예시가 부정적 문맥일 경우에, 도/시/군/구, 정부 부처 등 모두 비식별화 처리를 한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맥락을 지

닌 예시를 제시한다.

7. 사용 예시를 찾기 어려운 것은 <집필 완료> 대신 그 상태로 두어 <집필 중>으로만 놓아둔다.
8. 사용 예시가 문장인 경우에는 마침표 등의 문장 부호를 찍는다. 구 단위 사용 예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어느 조항의 일부인 경우가 다수이므로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9. 사용 예시에 제시된 정비 대상 용어는 진하게 표시를 한다. 용언의 경우는 어미를 포함하여 굵게 표시하고 체언의 경우는 조사를 제외한 용어 부분만 진하게 표시한다.
10. 사용 예시 검색으로 얻은 결과가 한자로 표시된 것은 한글로 바꾸어 예시를 제시하고, 경우에 따라 ‘한글(한자)’ 형태로 이 둘을 병기할 수 있다.
11. 가운데점, 따옴표, 붙임표, 단위 기호 등은 시스템 내의 ‘특수 문자 입력기’를 클릭하여 해당 기호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12. 정부 부처의 발간 자료 출처를 제시할 때, 발간 자료 제목을 그대로 입력한다. 발간 자료의 제목에 연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대로 입력한다.
13. 사용 예시의 출처에 신문 또는 방송 기사, 보도자료 및 논문 등의 웹 주소(URL)는 표시하지 않는다.
14. 기사 등이 작성되거나 발간된 일자를 연월일로 표시할 때 십의 자리에 ‘0’은 표시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2022년 9월 3일의 경우 ‘2022. 09. 03.’와 같이 표시하지 않고 ‘2022. 9. 3.’과 같이 표시한다.
15. 사용 예시의 출처도 어문 규범에 따라서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표시한다. 규범에 맞지 않게 된 기사의 제목 등은 규범에 맞게 수정하여 제시한다.
16. 마땅한 사용 예시가 없어 네이버 백과사전 등에서 예시를 찾아 제시한다면, 출처를 기타로 처리하고 사전명을 기입한다. 이때 사용 예시 출처는 기타에 ‘사전명’, ‘검색어명’의 순서로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⑤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 부호 사용

1. 정의문이나 사용 예시의 구 단위 전문 용어의 띄어쓰기는 규범에 따라 띄어쓰도록 한다. 특히 사용 예시에서 등장하는 표제어의 띄어쓰기가 표제어로 제시된 형태의 띄어쓰기와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2. 사용 예시에서 단체명은 하나의 단위를 가리키는 것이 명확하다면 일반적인

쓰임에 근거하여 붙여 쓰도록 한다.

3. 한자어, 고유어(혼종어에 포함되어 있는 고유어)의 경우는 원어 표시에서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예) 측정^정도와^무게의^관계 → (한자)測定程度(고유어)와무게의(한자)關係

4. 대상 용어, 정의문, 사용 예시 등에 로마자나 한자가 노출되어 있는 경우, 「국어기본법」 제14조¹⁾에 따라 한글로 작성한다.
5. 사용 예시, 정의문 등에 사용할 문장 부호 중 자판의 설정 환경 등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는 것 등은 시스템 내의 특수 문자 입력기를 열어 이곳에 제시된 기호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운뎃점, 따옴표, 붙임표, 단위 기호 등이 있다.

⑥ 일치어의 판별 및 처리

1. 일치어를 추가할 때에는 형태(표기)와 의미가 같아야 한다. 아직 정비가 되지 않은 용어들이 있으므로 정의문에 담긴 개념이 같다면 분야 정보나 띄어쓰기 등의 표기가 다르더라도 일치어로 처리한다.
2. 정의문에 관련 용어가 제시되어 있지만, 관련 용어에서 검색이 되지 않으면 관련 용어는 등록하지 않는다.
3. 원자료의 설명과 『우리말샘』 등의 설명에 표현의 차이가 있더라도 개념이 같으면 일치어로 처리한다.

⑦ 대역어

1. 대역어가 로마자인 경우, 소문자로 쓰는 것이 원칙이나, 고유 명사, 독일어의 경우에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쓴다.
2. 대역어에 본말과 약어를 함께 입력할 때 두문자어(로마자)로 된 약어는 마침표 없이 대문자로 제시하고, 본말 중 약어에 해당하는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쓴다.
3. 표제어가 외래어이고 대역어도 이와 같은 형태인 경우에는 대역어를 제시하지 않는다.

1) 「국어기본법」 제14조: 공공 기관 등은 공문서 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 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2.4.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지침의 수립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은 대상 자료의 원저작자가 구축한 전문 용어집의 정보를 오염시키지 않고 전산화하는 것이 기본적인 작업 목표이다. 이에 따라 대상 자료의 정보를 국립국어원의 「용어 구축 시스템」의 하위 표제항 항목에 적절히 분배하여 할당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아래의 ‘전문용어집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지침’을 수립하였다.

이때, 개별적인 대상 자료의 미시 구조 및 정보 항목이 서로 다르기에 지침 수립에 앞서서 개별 자료별로 미시 구조 및 정보 항목 분석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분석 과정에 따라 수립된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지침은 하위 표제항별 작업 지침과 더불어 대상 자료별 표제항 대응 관계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은 기존의 자료집에 누락되어 있는 표제항 정보를 작업자들이 새롭게 생성해 내거나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 자료집에 기술된 내용을 전산화하여 국립국어원의 「용어 구축 시스템」에 탑재하는 것이 기본적인 작업 내용이다. 그에 따라 대상 용어집의 정보를 시스템 표제항의 정보 성격에 맞게 할당하는 것이 작업 지침의 주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다만 각 용어 하위 표제항 가운데 ‘용어(표제어)’, ‘원어’, ‘관련 용어(일치어)’ 세 가지의 경우 기존 용어 정비 사업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작업자들의 확인 및 수정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정의문’의 경우에도 구두점과 관련된 기본적인 형식적 일관성을 지키도록 하였다. 만일 이 외의 추가적인 정보가 있을 경우 최대한 기존의 표제항 정보에 맞게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런 취지와 흐름에서 본 연구진에서는 ‘전문용어집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지침’을 마련하였다. 그런 후 주관 기관인 국립국어원과 협의를 하여 작업 지침을 수정하고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작업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작업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3]과 같다. [붙임

3)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전문 용어집의 구조를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지침을 만들고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작업의 결과로 아래의 <표 4>의 『쉽게 고친 문화재 용어 자료집(민속학 미술사 용어 해설)』을 대상으로 한 것과 같이 데이터베이스화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4>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예시

분야	순화대상용어	순화용어	용어해설	영문
민속학	家督權(가독권)	가독권	가독'으로서의 권리. '가독'은 집안을 감독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집안의 대를 이어나갈 말아들의 신분을 이르는 말.	
민속학	각설이打歌(각설이타)	각설이타령	동냥하는 사람이 장터나 길거리로 돌아다니면서 구걸할 때 부르는 소리. 장타령이라고도 함.	a folk-song sung by beggars
민속학	耕織圖(경직도)	농촌생활도, 경직도	동양화에서, 농사와 길쌈을 생산 활동의 기본으로 하는 농촌 생활을 연속화의 형식으로 그린 그림.	

→

용어	원어	정의문	정의문 출처	대역어	대역어 약어	참고 사항
가독권	家督權	가독'으로서의 권리. '가독'은 집안을 감독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집안의 대를 이어나갈 말아들의 신분을 이르는 말.	쉽게 고친 문화재 용어 자료집 (민속학 미술사 용어 해설)(문화재청)			분야: 민속학 순화 용어: 가독권
각설이타령	각설이打歌	동냥하는 사람이 장터나 길거리로 돌아다니면서 구걸할 때 부르는 소리. 장타령이라고도 함.	쉽게 고친 문화재 용어 자료집 (민속학 미술사 용어 해설)(문화재청)	a folk-song sung by beggars		분야: 민속학 순화 용어: 각설이타령
경직도	耕織圖	동양화에서, 농사와 길쌈을 생산 활동의 기본으로 하는 농촌 생활을 연속화의 형식으로 그린 그림.	쉽게 고친 문화재 용어 자료집 (민속학 미술사 용어 해설)(문화재청)			분야: 민속학 순화 용어: 농촌생활도, 경직도

3. 정비 과업 진행 절차

3.1. 용어 정비

3.1.1. 기구축 자료 검토, 정비 대상 용어 선정

본격적인 정비 작업에 앞서 기구축 자료를 검토하고 정비 대상 및 범위를 결정하였다. 정비 항목은 표제어, 분야 분류, 원어, 정의문, 용례, 관련 용어, 대역어이므로 해당 항목의 거시 구조와 미시 구조를 파악하고 정비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하였다.

기본적으로 정비 대상 용어는 언중들의 언어생활의 바탕이 되거나 관여도가 높은 용어를 고르고, 사용 예시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염두에 두고 책임 연구원과 공동 연구원이 역할을 분담하여 이 어휘들의 미시 구조의 구축 상황을 살펴 이번 과업의 목표 달성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정비 대상 어휘 항목을 선정하였다.

이때 영어 등의 외래어로만 구성된 어휘나 의미 파악이 어려운 약어 등과 같이 표제어 단계에서 제외한 것과 정의문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용어를 포함하여 339개는 정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정비 과정에서 두 개 이상의 정의문을 포함하고 있거나 표제어 분리가 필요한 용어를 확인하고 신규 구축을 통해 정비 대상 용어를 확보하여 8개 자료집에서 최종 12,171개 항목을 선정하였다.

정비 지침은 국립국어원에서 마련하여 제공하였다. 제공받은 정비 지침을 국립국어원의 요청에 따라 연구진에서 검토를 하여 논의가 필요하거나 보완이 필요하거나 하는 것을 추출하고 정리하여 국립국어원에 전달을 하였다. 이 연구진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립국어원에서 정비 지침을 수정하였고, 그 결과물을 보내 온 것을 가지고서 정비 작업을 하였다.

3.1.2. 정비 지침 보완

정비 작업의 기준은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한 지침과 연구진 자체적으로 만들어 사용한 지침을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작업을 해 나가되, 논의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사안이 발생하면 연구진 내의 협의를 통하여 처리 방향을 결정하였다. 이렇게 결정한 처리 방향이 주관 기관과의 협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국어원과 논의를 거쳐 주관 기관과 해당 사항을 공유하며 일체화를 이룬 상태에서 정비 작업을 하였다.

연구진에서는 월별 보고와 중간보고 등의 주기적인 보고회를 통하여 국립국어원과 정비 지침의 수정 및 보완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지침과 관련하여 연구진과 국립국어원 사이에 논의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6월 2일(금) 회의에서의 정비 지침 관련 논의 사항

- (1) 정의문과 사용 예시 제시에서 띄어쓰기의 처리: 붙여 쓰기 허용 범위
- ① 고유 명사의 띄어쓰기: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 안전부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 학회명, 학회지명, 향만용어사전(해양수산부)~향만 용어 사전(해양 수산부)
- ⇒ 논의 내용: 기관명, 학회명 등 고유성을 지닌 것들은 해당 기관이 붙여 쓰기를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도 붙여 쓰는 경향을 고려하여 붙여 쓰도록 함. 그 외의 전문 용어,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결합형 등은 띄어 쓰는 것으로 처리함.
- ② 단위성 의존 명사의 띄어쓰기: 1개~일 개, 제1조~제1 조, 2시 30분~2 시 30 분~ 두시 삼십분~두 시 삼십 분, 6월 2일~6 월 2 일~유월 이일~ 유 월 이 일, 300원~300원~삼백원~삼백 원
- ⇒ 논의 내용: 숫자 다음에 오는 것,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붙여 쓰도록 하고, 나머지 것들은 원칙대로 처리함.
- (2) 출처에서의 법령의 범위 문제: 법령의 사전적 정의는 ‘법률(국회 의결+대통령 서명 공포, 헌법 다음)+명령(행정 기관에서 제정,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인데, 이 법령의 범위를 사전적 정의에 따를지 아니면 법규의 성격을 지니지 않는 행정 규칙, 여러 규정, 지침 등도 포함 여부
- ⇒ 논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검색이 되는

것들은 법령으로 보되, 상단의 메뉴에서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판례 및 해석례 등」, 「별표·서식」에서 제시되어 있는 것을 구체적인 기준으로 삼아 법령으로 처리하기로 함.

- (3) 한자 노출 여부 문제: 국가 이름을 나타내는 美, 中, 日, 獨 등을 노출해서 표기 또는 미(美), 중(中), 일(日), 독(獨)과 같이 한글(한자)로 병기
⇒ 논의 내용: 미(美), 중(中), 일(日), 독(獨)과 같이 한글(한자)로 병기하는 쪽으로 처리함.
- (4) 원자료집에 제시된 여러 대역어의 처리: 원자료집에 있는 것은 삭제하지 않도록 함. 이후에 국립국어원에서 입장을 정하여 처리할 예정임. 다만 영어 대역어의 경우는 지침에 따라 처리를 하고, 원어 자문 요청 시에 같이 자문을 요청하여 검토를 받기로 함.

[2] 6월 14일에 국어원에 보낸 연구진 내의 수정 정비 지침

- (1) 대상 용어: r/R의 표기와 처리 방안 수정
(기존) 대상 용어에 아라비아 숫자나 로마자 등이 포함된 경우, 아라비아 숫자나 로마자도 한글로 표기한다. 다만, 아라비아 숫자나 로마자가 포함된 표기는 ‘검색용 이형태’로 입력한다.
(수정) 대상 용어에 아라비아 숫자나 로마자 등이 포함된 경우, 아라비아 숫자나 로마자도 한글로 표기한다. 다만, 아라비아 숫자나 로마자가 포함된 표기는 ‘검색용 이형태’로 입력한다. 이때 ‘r/R’은 로마자 그대로 읽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은 대상 용어에는 ‘알’로 적고 검색용 이형태에 ‘아르’를 꼭 제시한다.
- (2) 원어: 9쪽의 한자 자형의 경우: 약자 → 약자나 속자, 정자 → 정자(본자)
(기존) 원어가 한자인 경우, 한자끼리는 모두 붙여 쓴다. 한자 자형은 ≪우리말샘≫ 원어의 한자를 따르되, 둘 이상의 한자가 병기되어 있는 경우 첫 번째 제시된 한자만 입력한다.
(수정) 원어가 한자인 경우, 한자끼리는 모두 붙여 쓴다. 한자 자형은 ≪우리말샘≫ 원어의 한자를 따르되, 둘 이상의 한자가 병기되어 있는 경우 첫 번째 제시된 한자만 입력한다. 약자나 속자가 통용되는 경우에도 ‘암석(岩石 → 巖石)’, ‘풍년(豐年 → 豊年)’과 같이 ≪우리말샘≫에 제시된 정자(본자)를 제시한다.
- (3) 사용 예시: 17~18쪽 사용 예시의 띄어쓰기, 기관명, 학회명 등 띄어쓰기 관

련 처리 방안 추가 및 수정

(기존) 해당 내용 없음.

(수정)

① 사용 예시와 출처의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에 따라서 수정하여 제시한다. 즉 ‘본용언+보조 용언’의 결합, 맞춤법 제50항에 해당하는 전문 용어의 띄어쓰기는 원칙대로 띄어서 제시한다. 예를 들어 행정 안전 백서는 고유 명사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니 단어별로 띄어 쓰도록 한다. 그러나 맞춤법 제49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행정안전부와 같은 것들은 단어별 띄어쓰기보다는 단위별 띄어쓰기를 하는 것이 언중들의 실제 쓰임에 가깝고 어색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는 붙여서 제시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서 행정안전부를 포함하는 것들은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 청사와 같이 띄어쓰기를 하도록 한다.

② 한글 맞춤법에서 명시하지 않은, 조사나 어미의 쓰임, 문장의 구조에 관한 것 등은 일절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시한다.

③ 출처 자료의 종류는 정확히 선택되도록 한다. 그런 다음 반드시 아래의 예시에서 제시한 형식으로 출처 정보를 제시한다. 기사의 연월일은 2023. 05. 09.,와 같은 형식이 아닌 2023. 5. 9.,와 같은 형식으로 표시하고, 인용 면수를 표시하는 경우 ‘3쪽’ 등의 뒤에는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④ 논문 등의 출처 제시에서의 쪽은 수록 면수가 아닌 인용 면수이다. 그러니 해당 사용 예시가 제시되어 있는 면수를 기입하도록 한다.

⑤ 논문이나 단행본의 출판 연도를 “추효상(2019),”와 같은 방식으로 제시하지 않고 “추효상, 2019,”와 같은 방식으로 제시하도록 주의한다.

(4) 사용 예시: 19쪽의 신문사, 방송사의 표시 처리 방안 추가

① 신문사나 방송사의 경우 ‘MBC’, ‘KBS’, ‘SBS’, ‘YTN’, ‘MBN’, ‘JTBC’ 등과 같이 알파벳 이름으로 읽는 것은 로마자 대문자로 표시하고, ‘NEWSIS’, ‘한경 BUSINESS’ 등과 같이 자모의 결합형으로 읽는 것은 ‘뉴시스’, ‘한경 비즈니스’와 같이 한글로 표시한다. 이때 표시 방식은 반드시 통일하도록 하고, 연구진 차원에서 정리가 필요한 것들은 관리자에게 알려서 지침을 마련하는 데에 협조한다.

(5) 사용 예시 중 고유 명사의 비식별화: 19쪽

(기존) 출처에 고유 명사가 포함될 경우, 사용 예시와 동일하게 비식별화한다.

(수정) 출처에 고유 명사가 포함될 경우, 사용 예시와 동일하게 비식별화한다.

비식별화를 하되, 비식별화 대상 정보가 노출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긍정적인 내용의 기사 등의 경우에는 비식별화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경기 김포시’의 경우와 같이 공공 기관이나 공기업 등이 이에 해당). 그러나 사기업이나 개인의 경우는 일관되게 비식별화 표시를 하며 공공 기관 등이라 하더라도 계약, 허가 등과 관련한 정보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공공성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으므로 비식별화 표시를 한다.

(6) 사용 예시: 한자 또는 외래어 원어 정보의 병기

(기존) 없음.

(수정) 사용 예시에 한자 또는 외래어의 원어 정보를 ()에 넣어서 병기하는 경우의 한자의 글꼴이나 로마자 대소문자의 표기 등에 해당하는 것은 ㉓ 원어의 표기 원칙에 따라서 제시한다.

(7) 관련 용어: 관련 용어 처리 사항의 상세화

(기존) - 표준 전문용어: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전문용어 표준화 절차를 거쳐 고시한 용어.

- 일치어: 대상 용어와 형태 및 개념(분야, 원어, 의미 등)이 일치하는 용어.
- 다듬은 말: 외래 용어 등 어려운 대상 용어를 알기 쉽게 다듬은 용어.
- 참고어: 상위어, 하위어, 계열어 등 대상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되는 용어.

(수정) - 표준 전문용어: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전문용어 표준화 절차를 거쳐 고시한 용어. <표준 전문용어>는 국립국어원 누리집의 표준 전문용어 게시판에서 검색하여 해당되는 정보가 나올 때만 제시함.

- 일치어: 대상 용어와 형태 및 개념(분야, 원어, 의미 등)이 일치하는 용어. 띄어쓰기 정보도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어야 함. 일치어를 동의어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다듬은 말: 외래 용어 등 어려운 대상 용어를 알기 쉽게 다듬은 용어. <다듬은 말>은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검색하여 해당되는 정보가 나올 때만 제시함. 《우리말샘》에도 다듬은 말 정보가 제시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국립국어원 누리집의 <다듬은 말>에서 검색한 정보와 다를 경우 국립국어원 누리집의 정보를 우선함. 그리고 국립국어원 누리집의 <다듬은 말>에서 정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말샘》에 실린 정보는 제시하지 않도록 함.
- 참고어: 상위어, 하위어, 계열어 등 대상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참고

가 되는 용어. 동의어와 달리 반의어는 따로 없음. 그러므로 반의어는 참고어로 제시하도록 함.

(8) 기타

- ① 신문사, 방송사의 표시 처리 방안 추가
- ② ‘법령’ 출처 정보 제시 상세화
- ③ 국가명 약어로 제시된 한자의 처리 항목 추가

[3] 7월 11일(화) 회의에서 논의된 정비 지침 보완 내용

☐ 용어 정비 지침 관련

- 사용 예시 출처 ‘기타(논문)’ 이미지에 학회명이 누락된 예시가 제시됨. 추후 개정판 배포 시 아래와 같이 수정되는 것이 필요함.

현재	
기타 ▼	추효삼, 2019, '여자만 서수도 해역의 조류 및 조석평균류 특성', 수산해양기술연구 55, 259쪽
수정	
기타 ▼	남종현, 1999, '어문연구의 국어학', 어문연구 27-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80쪽

이와 같은 논의의 결과로 국립국어원에서는 [붙임 4]로 제시한 개정 이력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정비 지침을 개정하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연구진 내부에서 만들어 쓰던 지침 내용의 상당수가 국립국어원의 정비 지침에 포함되게 되었다. 그 결과로 기존의 정비 지침보다 한결 구체화된 지침을 가지고서 본 연구진에서는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3.1.3. 용어 배분

2.1.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정비 대상 용어로 선정한 어휘 12,171개를 「용어 구축 시스템」(<https://koreanterms.korean.go.kr>)에서 보조 연구원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정비 작업을 시작하였다. 용어 배분 시에는 용어집별로 과제를 개설하고 ‘집필 및 검토’ 분과에서 용어를 배분하여 연구원들이 비슷한 성격의 용어를 집중적으로 정비하도록 하여

일관성을 기하면서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것을 일차적인 기준으로 삼았다. 다만 보조 연구원과 공동 연구원들은 참여율에 따라 용어를 배정하였으므로 복수의 분과에서 작업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다.

본 연구진에서는 무엇보다도 사용 예시 확보를 우선하여 작업하였다. 그렇기에 사용 예시 확보의 수월성을 고려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래서 보조 연구원에게는 일정량의 용어를 작업 기간별로 배분한 후 집필 상황에 따라 추가로 용어를 배분하였다. <표 5>는 보조 연구원의 참여율을 반영한 집필 완료 목표 개수이다.

<표 5> 보조 연구원 작업 목표 배분표

보조 연구원	담당 용어 개수	보조 연구원	담당 용어 개수
김다솔	810	런 명지에	486
전철한	810	강영란	405
미즈카이 유카리	486	진주	486
조교현	486	오지수	810
하현정	810	이지성	810
고상미	810	김보미	200
최옥정	690	이유미	810
김종희	486	김유정	200
박찬우	405		

<표 5>와 같이 10,000개를 배분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보조 연구원들이 용어 구축 시스템에 적응하고 정비 지침을 숙지할 수 있도록 1차 배분은 『사회 재난 핵심 용어집』에서 100개씩 용어를 배분하였다. 전체 보조 연구원이 시스템에 가입하면 작업 분과에 분과원으로 등록하였다. 보조 연구원은 [그림 1]에서와 같이 각 과제별 ‘집필 및 검토’ 분과에서 집필자로 역할을 설정하여 등록하여 용어 집필을 진행하였다.

분과원 관리

과제

2023_분야별용어정비_사회 재난 핵심 용어집(행정안전부) ▼

분과

집필 및 검토 ▼

총 18건

분과원 추가

번호	이름	계정	역할	등록 날짜	삭제
18	조교현		집필자	2023. 5. 4.	삭제
17	박찬우		집필자	2023. 5. 4.	삭제
16	강영란		집필자	2023. 5. 4.	삭제
15	김유정		집필자	2023. 5. 4.	삭제
14	진주		집필자	2023. 5. 4.	삭제
13	김종희		집필자	2023. 5. 10.	삭제
12	이수진		집필자	2023. 5. 4.	삭제
11	전철한		집필자	2023. 5. 4.	삭제
10	김다솔		집필자	2023. 5. 4.	삭제
9	고상미		집필자	2023. 5. 4.	삭제

[그림 1] 「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분과원 등록하여 역할 설정하기

분과에 등록한 분과원은 자신이 등록된 분과에서만 활동할 수 있으므로 아래 [그림 2]와 같이 활성화된 분과에서 용어 정비 활동을 하게 되었다.

용어 목록

과제

2023_분야별용어정비_사회 재난 핵심 용어집(행정안전부) ▼

분과

✓ 선택

사회재난핵심용어집(원자료)

집필 및 검토

감수

과제 최종 검토 분과

국어원 검토 분과

분과 유형

[그림 2] 「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집필자의 활동 분과 확인하기

활성화된 분과로 들어간 후 분과원들은 [그림 3]과 같은 집필자 작업창에서 구체적인 집필 활동을 하였다.

[그림 3] 「용어 구축 시스템」 집필자 작업창

필수 항목으로 설정된 작업창에 입력된 값이 없으면 [집필 완료]가 불가하며 이때는 누락된 필수 항목을 반드시 입력해 달라는 확인창이 뜬다. 필수 항목으로 설정된 [사용 예시]는 집필 단계에서 최대한 수집이 필요한 항목으로서, 용어의 형태, 정의, 사용 분야를 고려하여 적절한 사용 예시를 찾는 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용어의 분야 분류를 2023 개정판 「국가 과학 기술 표준 분류 체계」의 분류와 해설서를 참고하여 시행하였다. 이어서 표제어와 정의를 고려하여 용어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되어 있는 용어들 가운데에서 관련 용어를 찾아 연결하는 작업을 하였다. 끝으로 대역어 정보가 있는 경우에 지침에 따라서 적절한 형태의 대역어가 제시되도록 하였다.

과업 초기에는 2023년에 개정된 「국가 과학 기술 표준 분류 체계」의 내용을 반영하여 코드 매핑 등 시스템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1차 작업 대상이었던 『사회 재난 핵심 용어집』의 경우 분야 분류를 필수 항목에서 제외하고 분과를 개설하였으나 이후 분야 분류 시스템 개선이 마무리된 후 분야 분류 항목 역시 필수 항목으로 지정하여 집필하게 하였다. 분야 분류는 2023 개정판 「국가 과학 기술 표준 분류 체계」의 분류와 해설서를 참고하여 작업하였다.

이런 과업을 절차에 따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진에서는 다음의 <표 6>과 같이 공동 연구원과 보조 연구원을 여러 개의 팀으로 묶어서 공동 연구원의 관리하에 지침에 맞게 통일되고 일관되며 내용적으로도 충실한 정비가 지향하였다.

<표 6> 공동 연구원과 보조 연구원의 팀 구성 및 팀별 담당 항목 개수

공동 연구원	보조 연구원	팀별 담당 개수
조재형	김다솔(810), 전철한(44)	854
백승주	미즈카이 유카리(398), 조교현(457)	855
조경순	전철한(767), 미즈카이 유카리(88)	855
최준	조교현(29), 하현정(697)	726
유하라	하현정(113), 고상미(742)	855
임태운	고상미(68), 최옥정(689), 김종희(98)	855
최지영	박찬우(405), 런 멩지에(450)	855
이수진	런 멩지에(36), 김종희(388), 강영란(302)	726
최윤	강영란(103), 진주(486), 오지수(266)	855
선한빛	오지수(544), 이지성(311)	855
김지혜	이지성(499), 김보미(200), 이유미(156)	855
공나형	이유미(654), 김유정(200)	854
계		10,000

이렇게 하여 모두 10,000개의 용어를 공동 연구원과 보조 연구원이 팀을 이루어 유기적으로 집필과 검토와 보완을 하며 정비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3.1.4. 용어 집필

용어 집필은 집필 지침에 따라서 「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배정받은 항목을 순차적으로 채워 나가고 정확성과 적절성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해 가며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우리말샘』(<https://opendict.korean.go.kr/main>)을 비롯하여 각 분야를 대표하는 용어 사전 등을 충실히 검토하면서 이 과업의 취지에 걸맞은 용어 집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용어 집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작업 순서: 표제어, 원어, 정의문, 전문 분야 분류, 사용 예시, 관련 용어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비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 표제어: 기본적으로 어문 규정에 맞게 정비한다.
- 원어: 누락된 정보를 찾아 보충하고 기입된 정보의 정확성을 기한다.
- 정의문
 - ① 단어 또는 구로 제시되어 있는 정의를 문장 정의로 수정 및 보완 한다.
 - ② 정의문은 언어적인 정의를 나타내는 것에 방점을 찍고 하나의 문장으로 제시하도록 하되, 부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 언어적 정의를 먼저 제시한 후에 부가 정보를 제시한다.
- 분야: 국가 과학 기술 표준 분류 체계에 따라 분류하고, 관련 용어 및 계열어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분류한다.
- 사용 예시: 용어의 의미와 사용 분야에 걸맞은 문장 단위 예시를 인터넷 등의 검색을 통하여 기사, 보도자료, 누리집, 법령, 잡지, 보고서, 논문, 특허 자료 등에서 뽑아 제시하고 반드시 출처를 표시한다.
- 관련 용어: 용어의 형태, 의미, 전문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구축된 자료에 제시된 용어들 사이의 관계를 충실히 표시한다.

이번 과업에서는 무엇보다도 사용 예시 확보를 최대로 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용어의 이해에서 사용 예시는 중요도가 높아서이다. 그런데 정비 대상이 되는 용어는 대개가 전문 용어의 성격을 띠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용 영역이 제한적이고, 사용 빈도가 낮거나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사용 예시가 확인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

이에 연구진에서는 인터넷 검색을 다각도로 실시하여 각종 언론사에서 낸 뉴스는 물론이고, 정부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 보고서, 계획서 등의 공개 자료, 연구 논문, 전문 자료, 특허 문서, 법령 등을 최대한 검색하여 사용 예시를 추출하여 보고자 최선을 다하였다. 또한 사용 예시는 모두 공신력 있는 자료에서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개인 블로그나 카페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배제하였다. 이 중 각종 발간 자료나 논문 자료 등과 같이 피디에프 형태로 된 것들을 효과적으로 검색하기 위하여 앞서 언급한 피디에프 검색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였다.

연구진에서는 사용 예시 확보를 위하여 보도자료를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다음의 (1)과 같은 보도자료에서 사용 예시를 찾아서 정비 결과물에 반영하였다.

(1) 사용 예시 확보를 위하여 참고한 주요 보도자료 목록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09. 5. 7., 「디자인 보호법 시행 규칙 일부 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보도자료, 2019. 11. 26., 원안위, 한울 3호기 정기 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 상승 시험 등 잔여 검사 추진
- 특허청 보도자료, 2006. 7. 10., 「미국 상표법·제도에 관한 분석 및 시사점
- 특허청 보도자료, 2014. 6. 20., 한국 출원인, 일본에서 수수료 없이 도로명 주소로 변경 가능
- 특허청 보도자료, 2022. 7. 14., 한국인 WIPO 진출 확대, 사무총장 방한 등 특허청-WIPO 협력 강화
- 한국전력공사 보도자료, 2017. 8. 11., 발전 설비 현장 성능 평가 프로그램 개발
- 환경부 보도자료, 2007. 12. 3., OOO 환경부 장관, 제9차 한·중·일 환경 장관 회의 참가

이어서 연구진에서는 사용 예시 확보를 위하여 정부 등의 공공 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공적인 성격을 지니는 기관의 누리집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로 다음의 (2)와 같은 누리집에서 사용 예시를 찾아서 정비 결과물에 반영하였다.

(2) 사용 예시 확보를 위하여 참고한 주요 누리집 목록

-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뉴스·교육·행사>조문별해설>제7조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에 대한 접근
- 국립생물자원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콘텐츠아카이브>연구자들이 들려주는 우리 생물 이야기>식물의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 국립종자원, 품종 보호>품종 보호 제도>제도 안내>품종 보호 심판 제도
-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전국법원 주요판결
-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판례속보>파라미터 발명의 기재 요건과 신규성 및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
- 문화재청, 새소식>문화재청 소식지>문화재 사랑>옹기의 역사성과 옹기장의 미래 가치
-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정책>정책 소통>홍보물>콘텐츠·저작권·미디어
- 법제처, 지식창고>법제>법제 논문 검색·내려받기>법령의 개정 및 폐지 방식
- 법제처, 지식 창고>법제 논문 검색·내려받기>인터넷 기술 특허 관련 법제 개선 방안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지식>아이시티(ICT) 동향 정보>상세 정보
- 주별기에 유럽 연합 대한민국 대사관 겸 주북 대서양 조약 기구 대한민국 대표부>뉴스>경제통상 동향>경제통상(종합)>이피오(EPO) 심판부의 조직 및 운영 현황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백문백답>생활법령 백문백답
- 특허고객 상담 센터, 에프에이큐(FAQ)>우선권 주장(특허·실용신안)이 무엇 인가요?
- 특허청, 지식재산제도>상표/디자인>디자인의 이해
- 특허청, 지식 재산 제도>주요 제도>특허/실용신안 제도>특허와 기준>표준화 기구 내 특허 정책
- 특허청, 지식 재산 제도>해외 상표 출원>국제 출원 절차>서식 작성 요령
- 특허청, 지식 재산 제도>해외 특허 출원

- 한국도서관협회, 문헌 정보학 용어 사전>특허 문헌
- 한국소비자 피해구제·분쟁조정, 분쟁조정>분쟁조정안내
-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료>국제조약>위성협약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발간자료>간행물>IP Report>주요국의 반도체 배치 설계권 제도의 현황 및 시사점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동향>일본>일본 와이즈시스템사(社), 특허 분류 코드군 무료 검색 사이트 갱신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동향>지식재산동향뉴스>유럽>독일 연방 특허 법원, 식별력 미약 상표의 혼동 가능성 부정

이어서 연구진에서는 사용 예시 확보를 위하여 법령에서의 용어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용어들의 경우 법률, 시행령, 장관령 등의 법령에서도 정의가 이루어져 있거나 사용 예시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이에 다음과 같은 법령 등을 사용 예시를 확보하는 데에 주요하게 참고하였다. 그 결과로 다음의 (3)과 같은 법령에서 사용 예시를 찾아서 정비 결과물에 반영하였다.

(3) 사용 예시 확보에 이용된 주요 법령의 목록

-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특허청훈령 제978호) 제32조제5항
- 상표법(법률 제18817호) 제73조제3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399호) 제116조제1항
- 선박에서의 오염 방지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451호) 제46조
- 선박전기설비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63호) 제3장제2절제71조
- 소방용 합성 수지 배관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소방청고시 제2022-13호) 제3조 구조와 외관
- 손해배상(대법원 1970. 4. 14., 선고, 67다2138, 판결) [판결요지]
-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 제도 관리·운영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70호) 제3조제15항
- 자가용전기공작물시설규정(대통령령 제5562호) 제7조제1항
-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부령 제98호) 제39조제1항

다음으로 연구진에서는 사용 예시 확보를 위하여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 등에서 발간한 간행물에서의 용어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다음과 같은 간행물 등을 사용 예시를 확보하는 데에 주요하게 참고하였다. 그 결과로 다음의 (4)와 같은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에서 발행한 간행물에서 사용 예시를 찾아서 정비 결과물에 반영하였다.

(4) 사용 예시 확보를 위하여 참고한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의 주요 간행물 목록

- 경희대학교, 2010, ‘원자력 발전소의 정비/시험 직무에 대한 연관 관계 분석 시스템 개발’, 한국원자력연구원.
- 교육부, 05 화력 발전 기자재 구매 기술 규격서 작성.
- 국토교통부, 도시철도시설 표준규격 제1편 선로시설.
- 대원 강업 주식회사, 1999, 현가 장치 개발(1단계 보고서),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 비컴전자, 2011, ‘초음파 수위 감지 시스템 개발’, 중소기업청.
- 에너지관리공단, 2003, 열병합발전 기술 가이드북.
- 전력거래소 시장 운영처, 계량 설비 설치 안내.
- 전력거래소, 2012., 전력 시장 운영 규칙 별표 8 정산 및 결제 절차 3 책임.
- 지식경제부·에너지 관리 공단 신재생 에너지 센터, 2011, 신재생 에너지 융자 지원 사업을 위한 자금·세제 지원 안내.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에너지 백년-짚을커에서부터 브름도래기까지-[제1권 정책·역사편].
- 특허청, 비전형적 상표의 효과적인 보호 및 운영 방안 연구 용역.
- 특허청, 2007. 10., 피시티(PCT) 국제 출원 가이드
- 특허청, 2008, 지식 재산 백서.
- 특허청, 2014. 7., 마드리드 국제 상표 등록 출원 실체 심사 지침서
- 특허청 등록과, 2001, 지식 재산권 관련 행정 심판 및 판례집.
- 특허 심판원, 2017. 9., 2017 구술 심리 매뉴얼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008, ‘친환경 에너지 플랜트 사업단 기획 연구’.
- 한국도로공사, 도로 설계 요령 제4권 터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석유 화학 공장의 전기 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 지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화학 공장의 혼합 공정에서 화재 및 폭발 예방에 관

한 기술 지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2 천장 주행 크레인의 안전 작업에 관한 기술 지침.
- 한국수력원자력, 신고리 5, 6호기 예비 안정성 분석 보고서(공개본).
-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교육원, 원자력계통기초 II (표준형).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월성원자력 4호기 제5차 정기검사 보고서.
-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 기술 정책 연구.
-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 발전소 계측 제어 계통 기능 설명서.
- 한국전력거래소, 발전기 기동 비용 산정 및 적용 기준 개선 방안 연구.
- 한국전력거래소, 전력 거래 실무 핸드북.
- 한국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 계통 신뢰도를 고려한 양수 발전기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최종 보고서).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고속 전철 시스템 통합 및 총괄(최종 보고서).
- 해양수산부, 연안시설 설계기준·해설 부록 I.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업종 공통 시설의 환경 오염 방지 및 통합 관리를 위한 최적 가용 기법 기준서.

용어들 가운데에 일반화되거나 대중화된 것들은 신문, 방송, 잡지사 등의 언론사에서 생산한 여러 형태의 기사 등에 실려 있는 것들이 많았다. 사용 예시들 중에서 상당수는 이와 같은 언론사의 기사에서 확보가 되었다. 기사에서 추출한 사용 예시의 원천이 된 언론사들의 목록은 다음의 (5)와 같다.

(5) 사용 예시 확보에 이용된 기사 발간 주요 언론사 목록

- 가: 가스신문,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건설기술신문, 건설타임즈,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남매일, 경남신문, 경남일보, 경북매일신문, 경북일보, 경상일보, 경인일보, 경향신문, 고양신문, 공학저널, 교수신문, 광주드림, 광주매일신문, 국민일보, 국방일보, 국제뉴스, 국토일보, 굿모닝충청, 그린포스트코리아, 글로벌이코노믹, 금강일보, 기계설비신문, 기호일보
- 나: 남도일보, 노동과세계, 노컷뉴스, 농민신문, 농수축산신문, 농축유통신문, 뉴데일리, 뉴스민, 뉴스비전미디어, 뉴스웍스, 뉴스웨이, 뉴스타파, 뉴스토마토, 뉴스티엔티, 뉴스핌, 뉴스1, 뉴시스, 뉴제주일보

다: 단비뉴스, 당진신문, 대구신문, 대구신문, 대구일보, 대전일보, 대한경제, 대한뉴스, 대한전문건설신문, 더구루, 더나은미래, 더팩트, 더퍼블릭, 데이 터넷, 데일리경제, 데일리대구경북뉴스, 데일리안, 데일리카, 데일리한국, 동아사이언스, 동아일보, 디일렉, 동양일보, 디지털데일리, 디지털타임스, 딜사이트

라: 라디오코리아, 라포르시안, 레이디경향, 로봇기술, 로봇신문

마: 매경이코노미, 매일경제, 매일신문, 매일일보, 머니투데이, 메디컬월드뉴스, 메트로신문, 무등일보, 문화뉴스, 문화일보, 문화저널21, 물류신문, 미디어 오늘, 미주중앙일보

바: 백세시대, 법률신문, 베리타스알파, 베타뉴스, 보안뉴스, 부산일보, 브레이크뉴스, 브릿지경제, 비즈니스포스트, 비즈한국, 빅데이터뉴스

사: 사이언스모니터, 산업일보, 새만금일보, 서울경제, 서울신문, 서울파이낸스, 세계일보, 소방방재신문, 스마트투데이, 스카이데일리, 스포츠경향, 스포츠 서울, 스포츠월드, 시민일보, 시사인, 시사저널, 시사저널이코노미, 시사포 커스, 신동아, 신소재경제, 신아일보

아: 아시아경제, 아시아타임스, 아시아투데이, 아이뉴스, 아이티데일리, 아이티 월드, 아이티비즈, 아주경제, 아파트관리신문, 안전신문, 에너지경제, 에너지데일리, 에너지플랫폼뉴스, 에듀진, 에스비에스, 에이빙뉴스, 에프피엔, 엑스포츠뉴스, 엠비시, 엠비엔, 오마이뉴스, 연합뉴스, 영농자재신문, 와이 티엔,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유티비, 울산제일일보, 월간마이더스, 월간로 봇기술, 월간 산, 월간전기, 월간중앙, 월간조선, 위키트리, 의학신문, 이뉴 스트투데이, 이데일리, 이비엔, 이웃집과학자, 이코노미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코노미21, 이코노미조선, 이코노미톡뉴스, 이투뉴스, 이투데이, 인공지능 신문, 인더스트리뉴스, 인천일보, 인천투데이, 일간스포츠, 일렉트릭파워, 일요시사, 일요신문

자: 잡포스트, 전기신문, 전기저널, 전남매일, 전남일보, 전력경제, 전북도민일 보, 전북일보, 전자신문, 전자일보, 정보통신신문, 제주매일, 제주일보, 조 선비즈, 조선일보, 조세일보, 주간경향, 주간동아, 중도일보, 중부일보, 중 앙일보, 지디넷코리아

차: 채널에이, 철강금속신문, 충북일보, 충청뉴스, 충청매일, 충청일보, 충청타 임스, 충청투데이

카: 칸, 컨슈머타임스, 케미컬뉴스, 케이비에스, 케이벤처, 코메디닷컴,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쿠키뉴스, 크리스천투데이

타: 테크월드뉴스, 투데이신문, 투데이에너지

파: 파이낸셜뉴스, 팩스경제티브이, 폴리뉴스, 프레시안, 피시사랑

하: 한겨레, 한경비즈니스, 한국강사신문, 한국건설신문, 한국경제, 한국목재신문, 한국아파트신문, 한스경제, 헤럴드경제, 헬로디디, 헬로티, 헬스조선, 현대해양

이와 같은 언론사의 기사에서 추출된 사용 예시는 이번 과업에서 제시한 사용 예시에서 가장 많은 수를 자랑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검색을 하여도 찾기 어려운 사용 예시는 학술 서적이나 학술 논문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 둘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학술 논문에서 더 수월하게 예시를 확보할 수 있었다. 사용 예시의 원천이 된 학술 논문의 목록은 다음의 (6)과 같다.

(6) 사용 예시 확보를 위하여 주요하게 참고한 주요 연구 논문 목록

- 구본찬 외, 2013, ‘볼 밸브 압력 강하와 공동 현상 감소에 대한 연구’, 제2회 첨단 사이언스·교육 허브 개발(EDISON) 경진대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김건수 외, 2023, ‘전기차 구동 모터 유냉 시스템용 비평형 베인 타입 오일 펌프의 노치 설계를 통한 소비 동력 저감 설계’, 한국자동차공학회 춘계 학술 대회집, 한국자동차공학회.
- 김경엽 외, 2004, ‘OO 정수장 송수 펌프의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유체기계저널 7-2, 한국유체기계학회.
- 김규원 외, 2019, ‘변압기 용량을 고려한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 방법에 관한 고찰’, 전기학회논문지 68P-1, 대한전기학회.
- 김기병 외, 2018, ‘복서 태평양 태풍 잠재 발생 빈도의 변동성에 관한 고해상도 기후 모델의 모의 성능 평가’, 기후연구 13-4, 건국대학교 기후연구소.
- 김남일, 2016, ‘최근 전력 시장 여건의 변화와 용량 요금(CP)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 김노형, 2013, ‘유체의 점성이 원심 펌프 성능에 미치는 영향’, 대한기계학회 논문집 B권 37-6, 대한기계학회.
- 김민석 외, 2007, ‘교차 자화 작용을 고려한 매입형 영구 자석 동기 전동기

의 통합형 디(d)-큐(q)축 쇄교 자속 추출', 전기학회논문지 56, 대한전기학회.

- 김세원 외, 2008, '선박 침몰 사고에 따른 아이티시(ITC)협회 약관 및 아이에스엠 코드(ISM Code)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항해항만학회지 32-3, 한국항해항만학회.
- 김영준 외, 2012, '우물통 해상 교량 기초의 설계 사례', 대한토목학회지 60-7, 대한토목학회.
- 김유진 외, 2021, '국제 기준 공기식 태양열 집열기 열 성능 평가 연구', 한국태양에너지학회논문집, 한국태양에너지학회.
- 김효재 외, 2014, '태양 전지 모듈용 솔드 합금의 산화 특성',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34-1, 한국태양에너지학회.
- 류한석 외, 2022, '전력망 보강 비용 분담 방안에 대한 해외 사례 조사',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2-4, 대한전기학회.
- 문태인 외, 1996, '용접흡이 환기기능에 미치는 영향', 대한산업의학회지 8-3, 대한산업의학회.
- 박해조, 1992, '화력 발전소의 전기 집진기 적용 실례', 공기조화 냉동공학 21-1, 대한설비공학회.
- 배재현 외, 2011, '발전기 기동 정지 계획에 관한 지역 최적해 탐색 알고리즘의 개발', 한국경영과학회 학술 대회 논문집, 한국경영과학회.
- 백두현 외, 1996, '수차 캐비테이션 저감 방안에 대한 연구(1차년도)', 한국수자원공사.
- 서대희 외, 2004, '복합 기능을 갖는 정보 보호 제품의 보호 프로파일 개발을 위한 평가 방법론 고찰', 정보보호학회지 14-1, 한국정보보호학회.
- 손성호 외, 2007, '해외 녹색 가격 제도 시행 사례 분석',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7-11, 대한전기학회.
- 송광의 외, 2004, 구조 개편 이행기 적정 전기 요금 규제 정책 방안(최종 보고서), 산업자원부.
- 안연식, 2011, '국내 가스 터빈 운영 및 진단 기술 개발 현황', 계장기술 2011년 3월호, 프로콘.
- 염영진, 2013, '소형 복합 재료 프로펠러를 위한 복합 재료 몰드 평가', 대한기계학회 논문집 A권 37-2, 대한기계학회.
- 윤인수 외, 2008, '증기 터빈 1단 노즐의 조속 현상이 터빈 성능에 미치는

영향', 플랜트저널 4, 한국플랜트학회.

- 이성우, 2005, '피뢰기 정격과 절연 협조', 전력 기술·정보 2005-8, 한국전기기술인협회.
- 이성행 외, 2018, '실측에 의한 강박스 거더교의 상하 온도 차에 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9-8, 한국산학기술학회.
- 이승준 외, 2018,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한 지하 광산 내 환경 모니터링과 통신 시스템의 연구 동향 분석 및 고찰', 터널과 지하공간 28-3, 터널과 지하공간.
- 이시연, 2002, '축 정렬(Alignment)종류 및 기술 현황', 열병합발전 26, 한국열병합발전협회.
- 장석명 외, 2003, '직선형 와전류 제동기의 특성 해석 및 비교', 전기기기 및 에너지변환시스템학회 2003년 춘계 학술 대회 논문집, 대한전기학회.
- 조용성, 2008, '기후 변화 레짐과 거버넌스: 기후 변화 협약과 교토 의정서', 국제평화 5, 서울평화상문화재단.
- 한기원 외, 2007, '임베디드 시스템을 이용한 시브이티(CVT) 유압 시스템 제어', 유공압시스템학회지 4-1, 유공압건설기계학회.
- 황경모 외, 2006, '주급수 격리 밸브 하부 몸체의 와류 현상에 따른 감속 영향 및 수치 해석 연구', 대한기계학회 논문집 B, 대한기계학회.

학술 논문에 이어서 사용 예시의 원천이 된 전문 학술 서적의 목록은 다음의 (7)과 같다.

(7) 사용 예시 확보를 위하여 참고한 주요 전문 서적 목록

- 오공균, 2012, 선급 및 강선 규칙, 한국선급협회.
- 이철재 외, 2017, 항공기 구조 설계 실무, 좋은땅.
- 최동수 외, 2013, 건축 전기 설비 총론 1권, 북큐브.
- 장세호, 2010, 박용 보일러와 증기 터빈, 도서출판 신화전산기획.
- 한국방청제공협동조합, 2018, 난방관수설비보호제, 한국방청제공협동조합.

이상과 같이 보도자료, 누리집, 정부 간행물, 법령, 신문 및 방송 등의 기사, 학술 논문, 학술 서적 중 어느 한 곳에서 사용 예시가 검색되는 경

우가 일반적이지만, 용어들 중에 특수성이 있는 것들은 잘 검색이 되지 않았다. 이런 용어 중에는 특허 출원 문서나 특허를 받은 문서 등에서는 쓰임이 관찰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 이런 점에서 특허 관련 문서도 주요한 사용 예시 검색 대상이 되게 되었다. 이처럼 사용 예시를 제시하는 데에 활용된 특허 목록은 (8)과 같다.

(8) 사용 예시 확보에 이용된 주요 특허 목록

- 가스 터빈 압축기의 디스크 고정 지그 및 이를 이용한 디스크의 가공 방법
(등록번호 10-1513481)
- 거문도 해풍썩을 이용한 액상 차의 제조 방법(등록 특허 10-1934812)
- 경사류 프로펠러 동력계 및 모형 프로펠러를 이용한 캐비테이션 침식 시험
방법 및 장치(등록특허 10-1105073)
- 고분자 응집제의 자동 용해 장치(등록번호 20-0262267)
- 공기 분리기를 구비하는 산소 생산 장치(등록특허 10-1229805)
- 난방 저부하 운전 특성이 개선된 공기 조화기(공개 특허[공개특허] 10-2010-
0087904)
- 냉·온 유체의 동시 공급 열펌프(특 1993-0012235)
- 냉장 시스템 및 그 제어 방법(공개특허 특2002-0057831)
- 다단식 쓰레기 소각로 및 쓰레기 소각 방법(88-002409)
- 더블 디스크 게이트 밸브(공개특허 10-2013-0120171)
- 데브리 필터 장치(공개특허 10-2017-0029679)
- 동력 발생용 터빈(공개특허 10-2008-0012660)
- 동적으로 조정 가능한 듀로미터를 갖는 화장품 도포기 헤드(공개특허 10-20
14-0028080)
- 드럼 보일러의 연료 공급 속도 제어 방법 및 장치(등록특허 10-1557591)
- 마이코플라스마 하이오뉴모니에에 대한 온도-감수성 생 백신(공개특허 10-2
003-0036647)
- 보일러 튜브 누설 감지 시스템 및 방법, 대한민국 특허청 등록 특허 공보(등
록번호 10-1546889)
- 복소 전력의 시간당 변화율을 이용한 동기 탈조 검출 방법(등록특허 10-059
9818)
- 사출 금형의 공기 냉각 시스템 및 그 방법(등록특허 10-1264893)

- 아이들시 대시 포트 제어 방법(등록특허 10-0259658)
- 야금 설비에서 이용하기 위한 초음파 노즐과 초음파 노즐의 치수화 방법(공개특허 10-2013-0025884)
- 열 교환기의 온도 제어 시스템(특 1995-0007016)
- 엔진 밸브(등록특허 10-1542447)
- 엔진 회전수 제어방법(등록특허 10-0623649)
- 유연 다물체 동력학 시뮬레이션에 의한 차량 구조물의 동응력 해석 방법(공개특허 특2002-0014121)
- 자동차용 타이밍 벨트의 장력 조절 장치(등록특허 10-0309830)
- 전력 계통 사고 파급 방지 장치(공개특허특1999-0033784)
- 전력 시스템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변 속도 발전기-전동기 장치(등록특허10-0182336)
- 전류 센서(등록특허 10-0968633)
- 진공 강자 흡식 펌프(등록특허 10-1580777)
- 진공 흡착 장치 및 그 구동 방법(등록특허 10-0591589)
- 초순수 생산을 위한 이온 교환 공정 파과점 예측 방법(공개번호 10-2017-00704315)
- 치킨 아네미아 바이러스 백신 및 진단 방법(등록특허10-0204438)
- 콘서베이터 차단 밸브(공개특허 10-2018-0033702)
- 태양전지용 백 시트(공개특허 10-2018-0011973)
- 터빈 로터 회전용 유압 구동 장치(등록특허 10-1990847)
- 펌프의 반폐쇄형 임펠러(등록특허 10-1797478)
- 히트 펌프 시스템의 과열도 제어 방법(등록특허 10-0540808)

이처럼 특허 관련 문서는 특수성을 띤 용어의 실제 쓰임을 확인하는 데에 주요한 원천이 될 수 있는 것들이다.

3.1.5. 연구진 내 용어 검토 및 보완

정비 작업은 공동 연구원과 보조 연구원이 팀을 이루어 진행하였다. 1차로 보조 연구원이 배분받은 원자료를 확인 후 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지침을 참고하여 집필한 후 작업을 완료하면 관리자가 팀별 담당 공동 연구

원에게 용어를 배분하여 검토하는 작업을 하였다.

공동 연구원의 검토는 내용이 정확하고 적절하게 집필되어 채워졌는지, 전문 분야 분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사용 예시가 제시되어 있으며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등에 역점을 두어 이루어졌다. 즉 표제어, 원어, 정의문, 전문 분야, 사용 예시, 관련 용어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비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작업 순서에 부합하게 미시 구조에 들어갈 정보들이 착실히 제시되었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부족함이 있는 경우에 이를 보충하고 균형을 맞추는 형태로 검토 작업을 하였다.

이와 같이 정비를 해 나가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정하고, 빈칸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많은 부분을 채워 넣어 정비 내용에 빈칸이 최소한으로 되도록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앞의 <표 6>과 같이 보조 연구원과 공동 연구원들의 접점이 많아지도록 하여 용어를 분배한 후 검토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럼으로써 집필과 검토가 호흡을 맞추어 원만하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각 과제별 [집필 및 검토] 분과에서 1차로 작업이 마무리된 것들은 [감수] 분과로 용어를 옮겨 2차 검토를 진행하였다. 감수는 전문가 검토와 공동 연구원의 사전적 감수 등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검토 작업을 한 후에 책임 연구원이 살펴보고 정확성과 적절성을 살피고 균형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판단하였다. 또한 작업 속도를 조절하고, 작업자들 사이의 편차가 생기지 않는지를 판단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정을 적절히 하였다.

3.1.6. 전문가의 검토, 연구진의 검토 결과 반영

연구진에서 검토가 이루어진 것들 중 전문 분야별로 결과물을 추출하여 외부 전문가에게 내용 검토를 요청하여, 용어 관련 정보가 정확하고 적절히 제시되었는지 등을 검토를 받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내용에 관한 지적을 받았다.

검토 대상은 용어집의 성격을 고려하여 용어가 전문 분야에 응집되어 있고 검토를 맡길 정도의 용어 개수가 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발전 용어집』, 『기구 용기 포장·식의약품 용어집』, 『식품 첨가물 용어집』, 『영한중 지식 재산권 용어 사전』이 검토 대상이 되었다. 『기구 용기 포장·식의약품 용어집』과 『식품 첨가물 용어집』은 성격상 유사성이 높은 것이기에 묶어서 같은 위원에게 검토를 요청하였다.

<표 7> 외부 내용 전문가 검토 관련 정보

용어집명	전문가 정보	용어 개수	전문가명	소속 및 직급
『발전 용어집』		3,194	김동희	전남대학교 전기공학과 부교수
『기구 용기 포장·식의약품 용어집』		118	김수정	전남대학교 식품공학과 부교수
『식품 첨가물 용어집』		716		
『영한중 지식 재산권 용어 사전』		1,317	류시원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총계		5,345		

외부 전문가들에게 검토를 요청한 바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였다.

- ① 용어(표제어) 및 원어 제시의 정확성: 용어의 표기, 특히 이 용어에 대응하는 제시된 원어가 정확한지를 검토 요청
- ② 정의문 기술의 정확성과 용이성: 정의문은 전문 분야의 의미 사용을 정확히

드러내면서 간결하고 고등학교 정도를 나온 사람이 보고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바, 현재의 정의문이 이 방향에 맞게 작성되어 있는지 검토하고 이상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 제시 요청

- ③ 사용 예시의 적합성: 용어의 의미와 용법에 걸맞게 쓰인 보기로서 적합한 것인지를 판단하고 용어가 사용되는 맥락과 어긋난 사용 예시가 제시된 것이 있다면 지적하고 사용 예시 대체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요청

외부 전문가 검토 작업은 용어집별 구축 내용을 엑셀로 내려받아 엑셀에 해당되는 내용을 제시받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엑셀에서 검토 의견을 남기는 형태로 제시한 것들은 연구진 내에서 공동 연구원이 적절히 반영하는 형태로 작업이 이루어졌다.

4	용어	남한어/북한어	검색용어 형태	원어	정의문	사용 예시	관련 용어	대역어	참고 사항	전문가 검토 의견
5										
3172	속도^변동률	남한어		<한자>速度變動率	1. <한국어>전동기에서 속도 변동률(%)로, 부하를 증가시킬 때 회전수는 일반적으로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속도 변동의 정도를 정격 속도로 나눈 비. <기타> 발전용어집(한국서부발전)	1. 연구용으로 개발된 5상 전동기는 정격 운전에서 전압 변동률, 속도 변동률, 역률, 효율 및 운전 특성 등이 많이 저하되어 이에 대한 문제점의 개선 요구하고 있었다. <기타> 정형우 외, 2012. 5상 1.5[KW] 농형 유도 전동기의 특성 개선, 전력전자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력전자학회, 219쪽		1. <영어>speed regulation rate	사용 예시가 단순 용어만 사용된 사례임	
3173	소내^전력률	남한어		<한자>所內電力率	1. <한국어>발전 전력량에 대한 소내 전력량의 비율. 일반적으로 보조기의 형식에 따라 다르나 발전기 출력의 5% 정도이다. <기타> 발전용어집(한국서부발전)	1. 올해 8월까지의 실적은 열효율을 0.38%, 소비 전력률을 0.29% 개선해 약 8만 4950TOE의 연료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기타> 매일경제, 2002. 12. 2, [에너지 대상] 경영 혁신 대상 / OOOO발전	* 일치어 : 소내^전력률 소내^전력률 * 동의어 : 소내^소비율	1. <영어>auxiliary use factor 2. <영어>auxiliary power ratio	사용 예시에 용어 일치하지 않음	
3174	새그	남한어		<영어>sag	1. <한국어>사각형 파를 회로에 입력한 경우 출력 파형의 상하가 일그러지는 상태. <기타> 발전용어집(한국서부발전)	1. 도 11에 나타내는 영상 신호 출력 회로(20)에서는, 영상 신호의 파형 변형(Sag, 새그)을 보정하는 회로를 형성함으로써 큰면서 (C1)의 용량을 작게 하고 있다. <기타> 반도체 집적 회로 및 영상 신호 출력 회로(등록특허 10-1678025), 4쪽		* 일치어 : 새그 새그	정의문과 사용 예시 일치하지 않음	
3175	비트	남한어		<영어>.bit	1. <한국어>전자적인 방법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본 단위 또는 일정 시간 동안 전송된 데이터의 양. <기타> 발전용어집(한국서부발전)	1. 즉, 비디오의 경우 더 적은 비트로 동일한 수준의 시각적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기타> 인공지능신문, 2021. 7. 15, OO의 에이아이(AI) 기반 압축 기술, 비디오와 음성 모두에서 놀라운 향상.. 생성적 적대 신경망 기반 자체 다 코덱			정의문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전 비트 용어와 중복되므로 참고하길 바랍니다.	

[그림 4] 『발전 용어집』 전문가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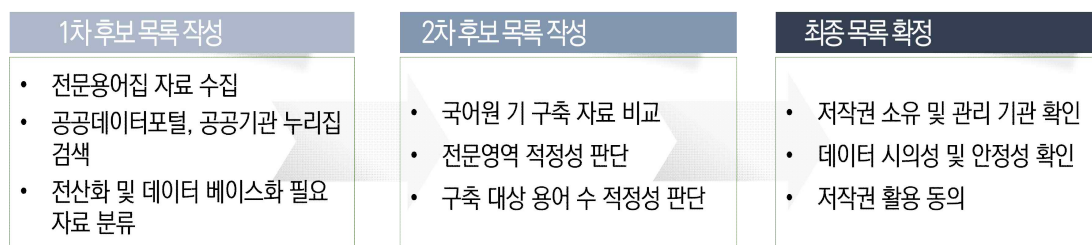
[그림 4]에서 보듯이 『발전 용어집』 전문가 검토의 결과 정의문과 사용 예시가 적절한지에 관하여 많은 검토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를 연구진 내에서 잘 파악하여 집필 원고를 적절히 수정하는 형태로 반영하였다.

의 표기와 관련한 검토 의견 제시가 많았다. 이런 검토 의견은 용어의 표기와 검색용 이형태를 제시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3.2. 전문 용어집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3.2.1.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대상 자료 선정

전문 용어집 전산 데이터베이스화는 지금까지 용어 정비 사업의 대상 자료로 포함되지 않은 전문 용어집 중 비구조화된 데이터나 표제항의 정보 항목 배열의 일관성 등이 결여되어 정제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을 「용어 구축 시스템」의 기본적인 표제항의 성격에 맞게 개별 정보 항목들을 배열하여 전산 데이터로 구축하는 작업이다.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대상 자료를 선정하는 과정은 아래의 세 단계로 구성되었다.



[그림 7]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목록 선정 단계

1차 후보 목록 작성 단계에서는 공공 데이터 포털 및 각종 공공 기관의 누리집 검색을 통해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한 자료를 분류하여 1차 후보 목록을 작성하였다. 2차 후보 목록 작성 단계에서는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한 기구축 용어집 목록을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용어 정비 및 구축 사업 범위에 포함된 자료와의 중복 여부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1차 후보 목록을 거르고 국립국어원과의 협의를 통해 기존에 구축된 자료의 전문 영역을 고려하여 전문 영역 및 구축 대상 용어의 규

모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2차 후보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후 최종 목록 확정 단계에서는 개별 전문 용어집의 저작권 소유 및 관리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 활용 동의 확인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목록을 확정하였다. 아래의 <표 8>은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대상 자료로 최종 선정된 목록이다.

<표 8>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대상 선정 자료 목록

	자료명	예상 용어 수	저작권 관리 기관
1	쉽게 고친 문화재 용어 자료집(민속학 미술사 용어 해설)	672	문화재청
2	쉽게 고친 문화재 용어 자료집(건축사 고고학 용어 해설)	504	문화재청
3	알기 쉬운 농업 용어집	1,205	전라남도청
4	국가 건설 기준 용어집(개정증보판)	4,23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5	2021년 기준 로봇산업 실태 조사	500	한국로봇산업진흥원
6	2016년도 퇴직 연금 금융 용어 정보	363	중소기업은행
7	국제 환경 협상 용어집 A to Z	620	환경부
합계		8,103	

3.2.2.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지침 작성

용어 정비의 기본적인 과업은 전산화되어 용어 총괄 관리 시스템에 탑재되어 있는 표제어 및 하위 표제항을 지침에 따라 수정하고 용례와 같이 누락된 필요 정보를 보완하는 것이다. 한편 전산 데이터베이스화의 기본적인 과업은 지속적인 용어 정비 환경 조성을 위한 용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으로서, 원저작자가 구축한 전문 용어 정보를 구조화하여 용어 총괄 관리 시스템의 표제항 정보 항목에 맞게 배치하는 것이다.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의 이러한 기본적인 과업 방향에 맞추어 대상

자료의 정보 항목과 용어 총괄 관리 시스템의 표제항 정보 항목 대응과 관련된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지침을 작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립국어원에서 정비를 요구한 ‘용어(표제어)’, ‘원어’, ‘일치어’ 등의 표제항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용어 정비 과업에서 활용한 ‘용어 정보 집필 및 정비 지침서’의 내용을 최대한 따르는 것으로 지침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정의문’의 경우 원저작자가 기술한 정의문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용어 구축 시스템」의 기본적인 형식적 일관성을 고려하여 정의문의 끝부분의 마침표와 관련된 정비 작업만을 제한적으로 수행하였다.

아래는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지침 가운데 정비 대상 표제항에 대한 지침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3. 정비 대상 표제항: 전산 데이터베이스화를 대상으로 하는 표제항은 기본적으로 용어(표제어), 원어, 정의문 및 관련 용어(일치어)이며, 기타 추가적인 정보는 최대한 기존의 표제항 정보에 맞게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용어: 용어 정비는 「국립국어원 분야별 용어 정비 지침서」의 ‘**㉔ 대상 용어**’ 항목의 지침을 따른다.

2) 원어 및 어종: 원어 정비는 「국립국어원 분야별 용어 정비 지침서」의 ‘**㉓ 원어**’ 항목의 지침을 따른다.

○ 각 대상 자료별 원어의 원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원어 정보가 누락되어 있는 항목 가운데 대상 분야의 전문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는 표제어 항목의 원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 원어 정보를 기입한다.

- 이때, 원어 정보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표제어 항목은 원어 정보를 기입하지 않고 비워 둔다.

3) 정의문: 각 대상 자료별 정의문의 원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단, 정의문 마지막에 마침표(.)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에는 마침표를 기입한다.

4) 일치어: 대상 용어와 형태 및 개념(원어, 의미)이 일치하는 용어를 대상으로 일치어 정보를 입력한다.

- 분야별 용어 정비 지침의 변경에 따라 용어의 분야 일치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지침의 나머지는 대상 자료별 표제항 특징을 고려하여 「용어 구축 시스템」의 표제항의 대응 관계를 설정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아래는 7종의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자료집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건설 기준용어집’을 작업 지침을 사례로 제시한 것이다. 대상 자료별 표제항과 「용어 구축 시스템」의 표제항 대응 관계를 할당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업 지침을 구성하였다.

이때, 대상 자료집의 표제항을 용어 총괄 관리 시스템의 표제항에 일대일로 할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참고 사항’으로 일괄 할당하였다. 그리고 이후 수행될 용어 정비 과업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구분자와 배열 순서의 일관성과 관련된 지침 내용을 포함하였다.

4) 국가 건설 기준 용어집(개정증보판)

- 국문→용어
- 영문→대역어
- 국문용어정의→정의문
- 분야→참고사항
- 출처→참고사항
- 관련단체→참고사항
- 자료집명(국가 건설 기준 용어집(개정증보판)(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정의문 출처
- ※ 국문 항목 내에 영문과 국문이 함께 병기되어 있는 경우, 로마자로 표기된 영문 용어와 한글로 표기된 국문 용어를 각각 독립된 표제어로 처리한다.
 - 이때, 독립된 표제어로 처리한 영문 용어와 국문 용어의 정의문과 참고사항은 서로 동일하게 입력하며, 대역어로 처리하는 영문은 영문 용어에서는 원어로 사용한다.
 - 국문 항목 내의 로마자 표기 용어가 영문 약어에 해당할 경우, 국문 용어에 대한 표제항 중 대역어 약어에 할당한다.

- ※ 정의문 마지막에 마침표(.)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에는 마침표를 기입한다.
- ※ ‘참고사항’ 내에 하위 표제항의 유형 이름을 적고, 쌍점과 공백(:)을 구분자로 하여 내용을 입력한다.
- 참고사항에 둘 이상의 표제항 유형을 입력해야 하는 경우, 공백, 세로선, 공백(|)을 표제항 유형 간의 구분자로 사용한다.
 - 참고사항의 개별 표제항 유형 내에 둘 이상의 항목을 입력하는 경우, 쉼표와 공백(,)을 항목 간의 구분자로 사용한다.
 - 참고사항에서 제시하는 쌍점, 세로선, 쉼표, 공백 등 구분자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는 자판을 사용하여 입력한다.
 - 참고사항에 둘 이상의 표제항 유형을 입력할 때, 표제항 유형의 배열은 ‘분야>출처>관련 단체>동의어’의 순서로 입력한다.
- 예) 분야: 설비 | 출처: KDS 31 90 10 | 관련 단체: 대한설비공학회 | 동의어: 에스시아르

[입력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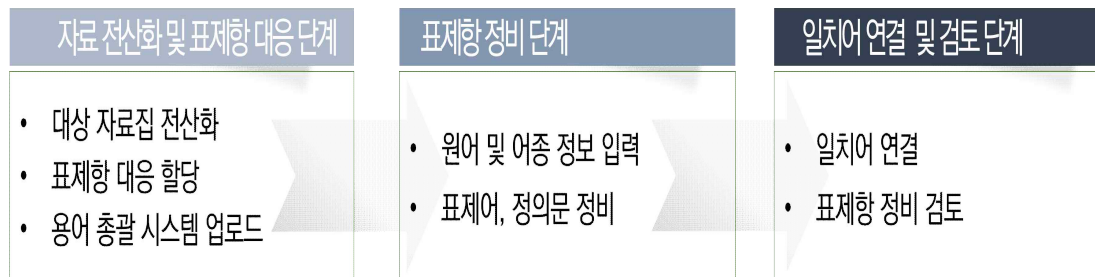
국문	영문	국문용어정의	분야	출처	관련 단체
SCR (촉매반응탑)	selective catalytic reactor	배출되는 가스중 질소산화물을 촉매환원법으로 암모니아와 반응하여 제거시키는 반응탑	설비	KDS 31 90 10	대한설비공학회
DCS(분산 제어 시스템)	distributed control system	하나의 중앙처리장치(CPU)를 여러 개의 작은 중앙처리 장치로 나누어 기능별로 분리하여 각 플랜트(공장)에 알맞은 단위 서브시스템으로 분리하고 각 소단위 시스템에서는 각각의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며, 상호간에 통신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분산 설치된 시스템	설비	KDS 31 90 55	대한설비공학회
100년 빈도홍수	100-year flood	연 발생확률이 1% 또는 이를 초과하는 폭우 또는 조석에 의한 홍수	교량	KDS 24 10 11	한국도로협회

→

용어	원어	정의문	정의문 출처	대역어	대역어 약어	참고 사항
촉매반응탑	觸媒反應塔	배출되는 가스중 질소산화물을 촉매환원법으로 암모니아와 반응하여 제거시키는 반응탑.	국가 건설 기준 용어집(개정중 보판)(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selective catalytic reactor	SCR	분야: 설비 출처: KDS 31 90 10 관련 단체: 대한설비공학회
에스시아르	SCR(Selective Catalytic Reactor)	배출되는 가스중 질소산화물을 촉매환원법으로 암모니아와 반응하여 제거시키는 반응탑.	국가 건설 기준 용어집(개정중 보판)(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분야: 설비 출처: KDS 31 90 10 관련 단체: 대한설비공학회
분산 제어 시스템	分散制御system	하나의 중앙처리장치(CPU)를 여러 개의 작은 중앙처리 장치로 나누어 기능별로 분리하여 각 플랜트(공장)에 알맞은 단위 서브시스템으로 분리하고 각 소단위 시스템에서는 각각의 주어진 역할을 수행	국가 건설 기준 용어집(개정중 보판)(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distributed control system	DSC	분야: 설비 출처: KDS 31 90 55 관련 단체: 대한설비공학회
디시에스	DCS(Distributed Control System)	하나의 중앙처리장치(CPU)를 여러 개의 작은 중앙처리 장치로 나누어 기능별로 분리하여 각 플랜트(공장)에 알맞은 단위 서브시스템으로 분리하고 각 소단위 시스템에서는 각각의 주어진 역할을 수행	국가 건설 기준 용어집(개정중 보판)(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분야: 설비 출처: KDS 31 90 55 관련 단체: 대한설비공학회
100년 빈도홍수	百年頻度洪水	연 발생확률이 1% 또는 이를 초과하는 폭우 또는 조석에 의한 홍수.	국가 건설 기준 용어집(개정중 보판)(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100-year flood		분야: 교량 출처: KDS 24 10 11 관련 단체: 한국도로협회

3.2.3.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배분 및 수행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은 공동 연구원과 보조연구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진에 의해 수행되었다.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단계는 자료 전산화 및 표제항 대응 단계, 표제항 정비 단계, 일치여 연결 및 검토 단계 등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그림 8]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수행 단계

자료 전산화 및 표제항 대응 단계에서는 보조 연구원들이 대상 자료집의 특성에 따라 피디에프, 워드 프로세서 등의 「용어 구축 시스템」의 표제항 성격에 맞는 대상 자료 표제항을 할당하였다.

엑셀 파일 형식에서 칼럼별로 구분하여 입력한 표제항 정보를 바탕으로 이를 「용어 구축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표제항 정비 단계는 「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수행되는데, 외부 전문가들이 「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원어 및 어종 정보를 입력하고, 보조 연구원들이 작업 지침에 따라 표제어 형식과 정의문 형식의 정비 작업을 수행하였다.

최종 검토 단계에서는 보조 연구원들의 일치여 연결 작업과 공동 연구원의 표제항 정비 작업의 적정성 검토 작업을 수행하여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완료하였다. 각각의 연구원별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수행 역할은 아래의 표와 같았다.

<표 9> 연구원별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수행 내용

참여 유형	성명	역할
공동 연구원	최준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대상 자료 목록 선정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지침 작성 표제항 정비 검토
	이수진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배분 및 일정 관리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지침 관리 표제항 정비 검토
보조 연구원	강영란	대상 자료집 전산화 표제항 대응 할당 일치여 연결
	박찬우	대상 자료집 전산화 표제항 대응 할당 일치여 연결
	김보미	대상 자료집 전산화 표제항 대응 할당 일치여 연결
	김유정	대상 자료집 전산화 표제항 대응 할당 일치여 연결
외부 전문가	고대영 (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회)	원어 및 어종 정보 입력
	조아람 (KBS 한국어진흥원)	원어 및 어종 정보 입력
	박선영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	원어 및 어종 정보 입력

4. 정비 과업 수행 결과

4.1. 용어 정비

4.1.1. 정비 완료 현황 및 통계

3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정비를 완료한 표 제어의 개수는 모두 10,118개이다. 기구축 용어별로 정비 완료를 한 항목의 개수는 <표 10>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다.

<표 10> 분야별 정비 완료 용어의 개수

용어집명 \ 용어 개수	원자료 용어	정비 대상 용어	검토 완료 용어	예시 구축 용어
『사회 재난 핵심 용어집』	1,971	1,873	1,694	1,642
『영한중 지식 재산권 용어 사전』	1,624	1,562	1,386	1,213
『산업 자원 용어 약어 해설집』	1,596	1,594	1,398	1,348
『통상 관련 용어집』	681	684	550	514
『해외 투자 용어 사전』	603	550	352	323
『식품 첨가물 용어집』	829	800	718	623
『기구 용기 포장·식의약품 용어집』	188	189	118	118
『발전 용어집』	5,105	4,919	3,902	3,302
계	12,597	12,171	10,118	9,083

실제로 집필을 시도한 용어는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12,171개였다. 그런데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정비 작업을 하다 보니 사용 예시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다수 발견되었고 이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정비를 완료한 용어는 10,118개였다.

<표 1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발전 용어집』에서 가장 많은 개수

의 용어가 정비되었고 이어서 『사회 재난 핵심 용어집』, 『산업 자원 용어
약어 해설집』, 『영한중 지식 재산권 용어 사전』, 『식품 첨가물 용어집』, 『
통상 관련 용어집』, 『해외 투자 용어 사전』, 『기구 용기 포장·식의약품 용
어집』의 순으로 용어가 정비되었다.

기구축된 원자료 용어 개수 대비 정비 대상으로 배분한 용어의 비율은 『발전 용어집』이 96.35%, 『사회 재난 핵심 용어집』이 95.02%, 『산업 자원 용어 약어 해설집』이 99.87%, 『영한중 지식 재산권 용어 사전』이 96.18%, 『식품 첨가물 용어집』이 96.50%, 『통상 관련 용어집』이 100.44%, 『해외 투자 용어 사전』이 91.21%, 『기구 용기 포장·식의약품 용어집』이 100.53%였다. 이를 모두 합친 비율은 96.61%에 달하였다.

이 정비 대상 용어 중에서 미시 구조 등을 갖추어 정비가 되고 검토 완료된 용어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발전 용어집』이 79.32%, 『사회 재난 핵심 용어집』이 90.44%, 『산업 자원 용어 약어 해설집』이 87.70%, 『영한중 지식 재산권 용어 사전』이 88.73%, 『식품 첨가물 용어집』이 89.75%, 『통상 관련 용어집』이 80.40%, 『해외 투자 용어 사전』이 64.00%, 『기구 용기 포장·식의약품 용어집』이 62.43%였다. 전체적으로는 83.13%가 검토 완료되어 이들을 납품하게 되었다.

정비가 된 용어 10,118개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전문 분야별 용어의 개수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11>과 같다. 용어집별로 상위 3위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시하여 보면 가장 먼저 『사회 재난 핵심 용어집』은 건설>보건의료>과학기술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영한중 지식 재산권 용어사전』은 사회과학이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문화예술체육학>정보/통신의 순으로 나타났고, 『산업 자원 용어 약어 해설집』은 사회과학>기계>정보/통신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통상 관련 용어집』은 사회과학이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정보/통신>건설/교통=기계의 순으로 나타났고, 『해외 투자 용어 사전』도 사회과학이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건설/교통>정보/통신의 순으로 나타났다. 『식품 첨가물 용어집』에서는 농림수산식품>화학>생명과학의 순으로, 『기구 용기 포장·식의약품 용어집』은 농림수산식

품>화학>생명과학의 순으로, 『발전 용어집』은 기계>전기/전자>에너지/자원의 순으로 분야 분포를 보였다. 10,118개 전체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상위에 사회과학>기계>건설/교통>전기/전자>에너지/자원의 순으로 용어의 분야 분포가 나타났다.

<표 11> 정비 완료 용어의 국가 과학 기술 표준 분류 체계에 따른 분류 결과

대분류	용어집명								대분류별 용어 총계
	재난	지식	자원	통상	투자	식품	기구	발전	
건설/교통	548	5	27	6	10	0	0	123	719
기계	122	2	123	6	1	11	1	1,517	1,783
지구과학	36	0	2	0	0	2	1	49	90
전기/전자	36	1	83	3	0	10	0	580	713
물리학	23	1	13	0	1	14	0	234	286
사회과학	128	1,253	603	490	324	4	6	173	2,981
재료	7	0	31	0	0	10	5	85	138
정보/통신	43	35	111	22	7	0	0	255	473
화학	82	2	36	0	0	194	7	173	494
환경	161	0	58	6	3	0	2	147	377
수학	0	0	0	0	0	0	0	17	17
보건의료	184	9	28	5	2	9	34	8	279
에너지/자원	47	0	93	0	2	0	0	419	561
화공	6	1	65	0	0	24	3	28	127
농림수산식품	48	5	6	5	1	341	54	4	464
문화예술체육학	2	54	40	2	0	0	0	8	106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167	1	11	0	0	0	0	13	192
생명과학	23	14	38	4	1	99	4	8	191
인문학	0	2	1	1	0	0	0	2	6
뇌과학	0	0	0	0		0	0	2	2
인자·감성과학	0	0	0	0	0	0	0	3	3
기타	2	1	0	0	0	0	0	5	8
원자력	29	0	29	0	0	0	1	49	108
용어집 별 용어 총계	1,694	1,386	1,398	550	352	718	118	3,902	10,118

이와 같이 각 분과 내에서의 분야별 분포를 확인하여 보면 지구축 용어집에 어떤 성격의 용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볼 수 있다. 이는 각 용어집에 해당하는 학문 분야가 어떤 전문 분야의 내용으로 구성되는지를 파악하는 데에 참고가 되는 유용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번 과업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사용 예시의 구축이었다. 사용 예시는 언중들이 용어를 쉽게 이해하고 명확히 쓸 수 있도록 참고가 되는 정보이다. 정비가 완료된 용어 10,118개 중에서 사용 예시를 갖춘 경우는 9,084개이다. 용어집별로는 가장 많은 용어가 구축된 『발전 용어집』이 84.62%, 이어서 『사회 재난 핵심 용어집』이 96.98%, 『산업 자원 용어 약어 해설집』이 96.42%, 『영한중 지식 재산권 용어 사전』이 87.51%, 『식품 첨가물 용어집』이 86.76%, 『통상 관련 용어집』이 93.45%, 『해외 투자 용어 사전』이 91.76%, 『지구 용기 포장·식의약품 용어집』이 100%였다.

사용 예시는 용어별로 하나씩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개, 세 개의 사용 예시가 제시된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복수의 사용 예시를 제시한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지만, 정비 대상이 되는 용어가 현실 언어에서 다양한 사용 예시를 보일 만큼 널리 쓰이고 있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사용 예시는 대부분 신문이나 방송의 기사, 공공 기관 등의 누리집에 실린 안내 글 또는 공개 자료, 정부 기관 등의 보도자료, 정부에서 발행한 각종 보고서 또는 백서, 특허 자료, 학술 논문이나 학술 서적에서 추출한 것들이다. 이들은 모두 전문 분야의 특성을 기본으로 지니면서도 공적인 언어 사용, 대중성을 갖춘 것들로서 사용 예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춘 것들이다.

4.1.2. 표제어 및 원어 정비

표제어 및 원어는 정비 지침에 따라 표기를 하고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

는 방식으로 정비하였다. 정비의 주요한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제어는 <표 12>에서 볼 수 있듯이 정비 지침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두 한글로 표기를 하고 규범 표기가 정해진 용어는 규범에 맞는 표기만을 제시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한글 이외의 문자로 표기된 용어가 실제로 유통되는 것을 감안하여 표제어는 ‘엠에이치디^발전’과 같이 하더라도 검색용 이형태에 음상이 같은 ‘MHD 발전’과 같이 한글 이외의 문자가 사용된 용어 형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비규범 표기가 실제로 널리 쓰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규범 표기가 있다면 규범 표기로 제시하고 비규범 표기는 검색용 이형태로 제시하였다. ‘알에스이삼이시’에 대하여 ‘알에스이삼이씨’를 검색용 이형태로 제시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표제어가 구 이상의 성격을 지니는 것들은 ‘차축^온도^검지^장치’과 같이 구성 요소 사이에 ^를 표시하여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붙여 쓸 수 있음을 표시하였다. 표제어 중에는 원자료집에 ‘메탄올·에탄올’과 같이 두 표제어가 묶인 형태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들은 정의문을 확인한 후에 하나의 개념을 나타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기에 용어를 분리하여 정비하였다. 그리고 대역어에 해당하는 정보가 ‘차축온도검지장치(HBD)’에 서와 같이 괄호 안에 병기된 형태로 제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표제어의 형태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가 아니므로 삭제하고 대역어 정보에 반영하는 형태로 정비를 하였다.

아래의 <표 12>는 원자료집에 있는 용어의 표제어가 이런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정비가 되었는지를 잘 보여 주는 것이다.

<표 12> 대상 용어 및 검색용 이형태 정비

용어집	정비 전	정비 결과		정비 내용
		용어	검색용 이형태	
발전	MHD발전	엠에이치디^발전	MHD 발전	외국 문자의 한글 표기, 띄어쓰기, 검색용 이형태 입력
발전	알에스232시	알에스이삼이시	RS232C, 아르에스이삼이시, 알에스이삼이씨,	숫자의 한글 표기, 검색용 이형태 입력

			아르에스이삼이씨	
사회 재난	메탄올 · 에탄올	메탄올		정의문 확인 후 용어 분리
		에탄올		정의문 확인 후 용어 분리
사회 재난	차축온도검지장치(HBD)	차축^온도^검지^장치		표제어에서 부가 정보 (대역어 약어) 삭제, 띄어쓰기

표제어의 경우 대부분 기구축 용어 자료집에 실려 있는 것이므로 오류가 없다면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제시된 용어를 기반으로 정비를 하였다. 그러나 검토 과정과 관련 용어 목록을 통해 현장에서 고빈도로 쓰이는 용어와 일정 부분 차이가 있는 경우가 확인되었다. 외부 전문가의 검토 의견에서도 이처럼 원자료의 용어와 실제 널리 유통되는 용어 사이에 거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표 13>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표 13> 현장에서 쓰이는 용어의 형태와 차이가 있는 용어의 정비

용어집	원자료 내용	외부 전문가 검토 의견	정비 결과
발전	가감^저항기	산업계나 학문적으로 ‘가감 저항기’라는 용어는 잘 사용하지 않고, ‘가변 저항기’로 사용합니다.	가감^저항기

이와 같은 검토 내용은 해당 용어의 현실적인 유통 양상을 지적한 것이므로 살아 있는 용어 사용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귀를 기울여야 할 내용이다. 그러나 본 과업의 목적이 기구축 용어집의 용어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데에 있고, 기구축 용어 자료집에 제시된 용어집이 만들어질 때의 용어 쓰임 실태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마땅히 필요하며, 이 원자료에서 제시한 용어가 현재도 사용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현재의 표제어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비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표제어에 대응하는 원어 정보를 빠짐없이 제시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원어 입력 유형을 보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4> 표제어의 원어 정보 정비

용어집	대상 용어	원어	어종
발전	햇별	원어 없음(고유어)	고유어
해외투자	곰팡이	원어 없음(고유어)	고유어
발전	앞쪽^언저리	원어 없음(고유어)	고유어
발전	희유금속	<한자>稀有金屬	한자어
기구·식품	생물^농축^계수	<한자>生物濃縮係數	한자어
사회재난	펄블런스	<영어>pumbulance	외래어
발전	플러그^밸브	<영어>plug valve	외래어
발전	디램	<영어>DRAM(Dynamic Random Access Memory)	외래어
해외투자	피엠	<영어>PM(Program Management)	외래어
발전	구름^베어링	<고유어>구름<영어>bearing	혼종어
지식재산	불법^라벨	<한자>不法<영어>label	혼종어
발전	굽힘^응력	<고유어>굽힘<한자>應力	혼종어
지식재산	식물^신품종^보호에^ 관한^국제^조약	<한자>植物新品種保護<고유어>에<한자>關<고유어>한<한자>國際條約	혼종어
발전	머리^착용^디스플레이	<고유어>머리<한자>着用<영어>display	혼종어
사회재난	안전한^지역^사회^만 들기^모델^사업	<한자>安全<고유어>한<한자>地域社會<고유어>만들기<영어>model<한자>事業	혼종어
발전	유엔^기후^변화^협약	<안 밝힘>UN(United Nations)<한자>氣候變化協約	혼종어
발전	발리^행동^계획	<안 밝힘>Bali<한자>行動計劃	혼종어
발전	바젤^협약	<안 밝힘>Basel<한자>協約	혼종어
지식재산	실연가,^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보호에^ 관한^로마^협약	<한자>實演家音盤製作者<고유어>및 <한자>放送事業者保護<고유어>에<한자>關<고유어>한<안 밝힘>Roma<한자>協約	혼종어

지식재산	시청각 [^] 실연에 [^] 관한 [^] 베이징 [^] 조약	<한자>視聽覺實演<고유어>에<한자>關<고유어>한<안 발함>Beijing[北京]<한자>條約	혼종어
------	--	---	-----

먼저 원어와 관련하여 대상 용어가 고유어로만 이루어진 경우는 정비 지침에 따라 ‘원어 없음(고유어)’으로 처리하여 원어 정보 칸을 비워 두었다. 그리고 대상 용어가 한자어인 경우에는 표제어는 어휘 구성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고 ‘^’으로 구성 요소의 경계를 표시하였으나 원어의 한자는 모두 붙여서 제시하였다. 원어가 일반 명사 중 인구어 등에서 온 것으로 로마자인 경우는 소문자로 쓰는 원칙에 따라 표시를 하였다. 그러나 원어가 고유 명사이거나 독일어인 경우에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썼다.

표제어가 로마자 두문자어로 된 약어인 경우, 마침표 없이 대문자로 제시하고 소괄호 안에 본말을 기재하였다. 이때 본말(줄어들지 않은 본래의 용어) 중 약어(머리글자만 따는 등의 방법으로 간략하게 줄인 용어)에 해당하는 첫 글자는 대문자로 썼다. ‘디램’이 이에 해당하는 예이다.

원어가 혼종어인 경우, 각각의 언어 종류를 선택하고, 언어별로 원어를 구분하여 입력하였다. 혼종어에 포함된 로마자로 표기된 인명, 지명 등의 고유 명사인 경우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고 ‘<안 발함>’으로 처리하였다. 표제어와 원어 정보 처리는 이와 같은 지침과 처리 방향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그 결과를 공동 연구원과 감수위원의 검토를 거쳐 수정·보완하였다.

이와 같이 처리된 원어 정보 가운데에는 <표 15>와 같이 원자료집에서는 원어 정보가 제시되어 있지 않았던 것들이 적지 않다. 이를 본 연구진에서는 정의문, 관련 용어 정보를 참고하고 『우리말샘』, 각종 전문 용어 사전 등을 참고하여 원어 정보를 찾아서 누락됨이 없이 원어 정보를 제시하게 되었다.

<표 15> 원자료집에 누락된 원어 정보의 정비

용어집	용어	원어 정보	
		원자료 내용	정비 결과
발전	개스킷	(없음)	<영어>gasket

발전	가이드^베어링	(없음)	<영어>guide bearing
발전	가채^연수	(없음)	<한자>可採年數
발전	먹거리^테크	(없음)	<고유어>먹거리<영어>tech
발전	글로벌^이행^점검	(없음)	<영어>global<한자>履行點檢
발전	마하수	(없음)	<안 발힘>Mach<한자>數
발전	람사르^협약	(없음)	<안 발힘>Ramsar<한자>協約
발전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없음)	<한자>東<안 발힘>Asia <한자>氣候<영어>partnership

<표 15>에서 볼 수 있듯이 원어가 고유 명사에 해당하여 기원적으로 어느 언어에서 유래한 것인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어의 어종을 밝히지 않았다. 이것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우리말샘』에 실린 외래어 정보를 활용하였으며, 이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립국어원 누리집의 한국어 어문 규범에서 외래어 표기법의 용례 찾기를 이용하여 검색으로써 얻은 결과를 활용하였다.

정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원자료의 원어의 언어명이 잘못 표시되어 있거나 누락되어 있거나 하는 것이 상당히 있었다. 또한 불필요한 표시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었다. 이처럼 일관성을 갖추지 못한 원어 정보들은 모두 정비 지침에 따라 원어가 지닌 정보에 맞게 손을 보아 제시하였다.

<표 16> 원자료집의 불완전한 원어 정보의 정비

용어집	용어	원어 정보	
		원자료 내용	정비 결과
발전	가교^폴리에틸렌	<기타어>架橋폴리에틸렌	<한자>架橋<영어>polyethylene
발전	가스^연소^보일러	<기타어>가스燃焼보일러	<영어>gas<한자>燃焼 <영어>boiler
사회재난	혐기성^세균	<한자>嫌氣性-	<한자>嫌氣性細菌

사회재난	로컬^제어	<기타어>Local 制御	<영어>local<한자>制御
사회재난	신호기의^외방	<기타어>信號機の 外方	<한자>信號機<고유어>의 <한자>外方
사회재난	배수량^모드	<기타어>排水量모드	<한자>排水量<영어>mode
발전	균열	<>龜裂	<한자>龜裂
발전	기계식^밀봉	<기타어>機械式密封(메커니컬실)	<한자>機械式密封
발전	익소	<기타어>날개요소(翼素(날개要素))	<한자>翼素

<표 1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가교^폴리에틸렌’의 경우는 원자료에 ‘폴리에틸렌’의 원어로 한글 표기가 제시되어 영어 ‘polyethylene’으로 수정하여 정비하였다. ‘혐기성^세균’의 경우는 ‘세균’의 원어가 ‘-’으로 입력되어 ‘세균’의 원어 ‘細菌’을 보충하여 수정하였다.

이어서 원자료집에는 원어의 언어명이 누락되거나 잘못 입력된 것이 다수가 있었다. 특히 단일 언어 즉, 한자어나 외래어로만 이루어지지 않은 혼종어의 경우 ‘기타어’로 입력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배수량^모드’의 경우가 이를 대표하는 것이었다. ‘배수량^모드’의 ‘모드’는 원어가 ‘mode’로 입력되어야 하나 ‘모드’로 한글 표기로 제시되어 있었다. 이에 ‘모드’를 ‘mode’로 수정하고 원어의 언어명이 <기타어>로 되어 있는 것을 ‘<한자>排水量<영어>mode’로 표시하였다.

원어 정보 가운데는 원어 외 불필요한 정보가 부기된 경우가 포함되어 있었다. ‘기계식^밀봉’은 원어인 ‘機械式密封’ 외에도 ‘메커니컬실’이라는 대역어 정보를 한글로써 괄호 안에 부기하였다. ‘익소’는 ‘날개요소’라는 이철동의어와 원어 정보가 부기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를 ‘익소’에 해당하는 ‘翼素’만 남기고 나머지 정보는 정비 과정에서 삭제하였다.

4.1.3. 전문 분야 분류

어떤 용어가 어느 분야에 속하는 용어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여러 분야에서 걸쳐 쓰이는 용어가 많아 용어의 사용 분야를 특정하기 어렵고 어떤 용어가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이다. 이에 표제어의 형태만을 가지고서는 분야를 판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의미를 기준으로 전문 분야를 판정함이 마땅하다 하겠다. 이것은 국립국어원에서 지향하고 있는 처리 방향이기도 하다.

이에 이번 과업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미를 기준으로 전문 분야를 판정하였다. 덧붙여 『우리말샘』에 동일한 용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우리말샘』의 분야 분류를 참고하여 전문 분야를 판정하였다.

‘무인[^]자동차’의 정의문은 ‘운전자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주행 환경을 인식하여 목표 지점까지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이다. 이에 국가 과학 기술 표준 분류 체계의 대분류에서 ‘기계’로, 중분류에서 ‘자동차/철도 차량’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방향에 따라 정비 대상 어휘 모두를 대상으로 분야 분류를 실시하여 제시하였다. 분야 분류가 애매한 경우 정의문의 내용과 관련 용어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공동 연구원들이 분야 분류를 검토하였다.

4.1.4. 정의문 정비 및 보완

정의문을 정비하고 보완하는 작업상의 기본 원칙은 기구축 자료의 정의문을 최대한 활용하여 작업하되, 기구축 자료에 정의문이 없을 경우에 해당 용어가 『우리말샘』이나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린 경우라면 이곳의 정의문을 참고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런 방침에 따르고 2장에서 제시한 정비 지침에 따라서 정의문 정비를 수행하였다.

하나의 용어는 하나의 개념을 담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이번 과업에서 기구축 자료에서 “①~. ②” 또는 “1. ~. 2.”와 같이 정의가 된 것 또는 정의문 영역이 다른 것들을 분리하여 제시하였다. 다음의 예는 이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표 17> “①~. ②”, 또는 “1.~ . 2.” 형식의 정의문의 분리 기술

용어집	표제어	기존 정의문 방식	정의문의 분리
발전	변위	① 위치의 변화 ② 내연기관의 피스톤이 움직여서 배기되는 용량. (배제체적) X (단위 시간당의 배제회수)로부터 계산되는 가스량 (배제체적) X (단위시간 당의 배제회수)로부터 계산되는 가스량을 말한다.	1.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것.
			2. 내연 기관의 피스톤이 움직여서 배기되는 가스의 용량.
발전	출수율	① 유로의 단면을 단위시간내에 통과하는 유체의 체적 ② 수력으로 가능한 발전력을 일정 기간의 평균가능 발전력으로 나눈 것으로 풍수/갈수의 정도를 나타낸다.	1. 유로의 단면을 단위 시간 내에 통과하는 유체의 체적.
			2. 수력으로 가능한 발전력을 일정 기간의 평균 가능 발전력으로 나눈 것.
지식 재산	압류	1.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것. 2. 국세채납처분의 1단계로서 체납자의 재산처분을 금지하고 이를 확보하는 강제행위. 3. 국가기관이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게 하는 처분.	1.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 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 처분이나 권리 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것.
			2. 국세 체납 처분의 1단계로서 체납자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고 이를 확보하는 강제 행위.
지식 재산	지정^ 관청	(특허)PCT국제출원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의 국내관청. 출원서의 제출로써 국제출원일에 조약에 구속되는 모든 체약국의 지정을 구성하는 효과가 있음. (디자인) 헤이그 협정에 의한 국제출원서 제출 시 국제등록이 특정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신청인 ‘지정’이 적용되는 체약 당사자 관청	1. 피시티(PCT) 국제 출원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의 국내 관청.
			2. 헤이그 협정에 의한 국제출원서 제출 시 국제 등록이 특정 체약 당사자 영역에서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신청인 ‘지정’이 적용되는 체약 당사자 관청.

본 연구진에서는 외부의 전문 분야 감수 위원에게 요청하여 내용과 형식 등에 관하여 보완해야 할 점을 청취하였다. 이번 정비에서 이루어진 전문가 검토 결과 기구축 자료집의 정의문 내용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일부 확인되었는데 정의문의 의미가 부정확하거나 불분명한 문제, 정의문이 다루고 있는 개념 범주 문제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외 용어의 단순 오타 및 철자 누락, 번역 어휘의 오류, 용어 사용의 오류, 띄어쓰기 오류 등이 확인되었다. 기구축 자료집 내의 단순 오류 및 형식적인 오류는 검토 위원들의 검토 내용을 연구진이 내부 논의를 통해 정비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또한 정의문에 사용된 표현 또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명확한 표현 또는 용어로 수정하여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8〉 정의문의 표현 또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의 정비

용어집	용어	정의문	
		애초 정비 내용	최종 정비 내용
지식 재산	실연	저작물을 <u>연기, 낭송, 노래, 춤 또는 상영 등의 행위</u> 로 표현하는 것.	저작물 등을 <u>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u> 으로 표현하는 것.
발전	공칭 [^] 최대 [^] 출력	<u>악조건하</u> 에서 운전하여 낼 수 있는 최대 출력.	<u>공칭 조건</u> 에서의 운전하여 낼 수 있는 최대 출력.
발전	과충전	<u>충전 완료 후 다시 충전을 계속하는 것</u> . 전지 수명 단축의 원인이 된다.	<u>정해진 충전 용량 또는 전압을 초과하는 것</u> . 전지 수명 단축의 원인이 된다.
발전	변압기	<u>전자 유도</u> 작용을 이용하여 전압의 크기를 변환하는 장치.	<u>전자기 유도</u> 작용을 이용하여 전압의 크기를 변환하는 장치.

‘실연’에 관한 정의문의 내용 중 ‘상영’은 ‘연기, 노래’ 등과 같은 범주

에 속하는 것으로 정비를 하였다. 그러나 ‘상영’은 실연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상영’을 ‘연기, 노래’와 같이 묶으면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는 ‘실연’의 정의문 내용 중 ‘상영’은 ‘실연’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상영’을 삭제하거나 저작권법상의 정의에 맞추어 ‘저작물 등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문을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이에 연구진에서는 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정의문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공칭^최대^출력’의 정의문에서 ‘악조건하에서’라는 표현은 ‘공칭’이라는 말이 갖는 의미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런 점을 중시하여 외부 전문가가 ‘공칭 조건에서’로 표현을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하여 왔는데, 연구진 내에서 검토를 거쳐 이를 수용하여 정의문을 수정하였다.

‘과충전’의 경우 정의문의 표현을 수정하는 안이 제안되어 연구원 검토 후 검토 위원회의 제안 내용을 반영하여 정의문을 수정하였다. ‘변압기’의 경우 ‘전자 유도’를 ‘전자기 유도’로 정의문의 용어를 수정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용어 선택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전자 유도’와 ‘전자기 유도’는 엄연히 지시 대상이 다른 것이라는 점에서 내용 이해에는 큰 영향을 주는 것이었다고 하겠다.

이어서 정의문의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오류가 있어서 보완이 필요한 것이 있었다.

<표 19> 정의문 내용의 부정확함이나 오류를 보완한 정비

용어집	용어	정의문	
		애초 정비 내용	최종 정비 내용
지식 재산	국제^출원^번호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해외 특허 출원이나 상표, 헤이그 국제	특허 협력 조약(PCT)에 의한 해외 특허 출원이나 상표, 헤이그

		출원에 의한 디자인의 국제 출원 시 부여되는 번호.	국제 출원에 의한 디자인의 국제 출원 시 부여되는 번호.
발견	능동형 [^] 센서	<u>제어하는 측의 에너지보다 제어되는 전기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일종의 증폭 작용이 있는 센서.</u> 에너지 제어형 센서라고도 한다.	<u>외부에서 전력을 공급받아 구동되는 센서.</u> 에너지 제어형 센서라고도 한다.

‘국제[^]출원[^]번호’의 정의문에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해외 특허 출원이나 상표, 헤이그 국제 출원에 의한 디자인의 국제 출원 시 부여되는 번호.’로 기술되었다. 그러나 특허의 국제 출원은 ‘마드리드 의정서(상표)’가 아니라 ‘특허 협력 조약(PCT)’에 근거한 것으로 정의문의 표현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외부 전문가의 검토 의견이 있었다.

실제로 특허청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보면 국제 출원은 특허 협력 조약(PCT)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정의문을 수정하였다.

‘능동형[^]센서’의 경우는 정의문의 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제어하는 측의 에너지보다 제어되는 전기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일종의 증폭 작용이 있는 센서.”를 “외부에서 전력을 공급받아 구동되는 센서.”로 수정하고, 기존 정비 내용에 있었던 “에너지 제어형 센서라고도 한다.”는 남겨 두어 절충적인 형태로 정비를 하게 되었다.

4.1.5. 사용 예시 구축 및 보완

구축한 사용 예시는 국립국어원의 정비 지침을 반영하여 사용 예시에 인명, 회사명, 지역명 등 고유 명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정적인 맥락이나 이해관계의 대립이 예상되는 경우 등 비식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O(영문 대문자)’로 바꾸어 익명으로 처리했다. 또한 사용 예시의 출처를 입력할 때는 출처 자료의 종류를 선택한 뒤, 기관명, 날짜(연월일), 자료명, 제목, 쪽수 등의 상세 정보를 썼다.

<사용 예시 및 출처 관련 정보의 정비 내용>

- 학술지에 실린 논문에서 논문 제목과 책 제목을 같이 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표시함.
(기관명/저자명), 발행 연도, ‘논문 제목’, 책 제목, 출판사명/발행 기관명, 인용 면수
- 사용 예시가 문장인 경우 마침표 등의 문장 부호를 찍음.
- 사용 예시에 제시된 정비 대상 용어는 진하게 표시(볼드 처리)하며 용언의 경우는 어미를 포함하여 굵게 표시하고 체언의 경우는 조사를 제외한 용어 부분만 진하게 표시함.
- 사용 예시의 출처를 제시할 때 맨 끝에는 마침표를 찍지 않음.
- 사용 예시 출처에 누리집 주소는 제시하지 않도록 함.
- 사용 예시의 출처도 맞춤법에 따라서 표시함.
- 가운데점, 따옴표, 붙임표, 단위 기호 등은 시스템 내의 특수 문자 입력기를 열어 이곳에 제시된 기호를 선택하여 입력함.

이와 같은 처리가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보조 연구원과 공동 연구원의 작업 단계에서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하였다. 또한 종합 검토 작업을 하면서 다시금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사용 예시는 언중들이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뉴스>보도자료>누리집>법령’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두었다. 하지만 용어가 전문 분야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것인 경우 뉴스 등에서 사용 예시를 찾기 어려웠으며, 전문 서적이나 학술 논문, 특허 문서에서 주로 확인할 수 있었다.

4.1.6. 관련 용어 구축

관련 용어 구축은 정비 대상이 되는 표제어와 관련된 용어들을 제시하고 이것이 표제어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보이는 것이다. 관련 용어 구축 역시 정비 지침에 따라 대상 용어와 형태 및 개념(분야, 원어, 의미

등)이 일치하는 일치어, 의미는 같으나 형태가 다른 동의어 등 용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참고어 등의 관련 용어를 연결하였다.

〈표 20〉 관련 용어 구축의 예

용어집	용어	관련 용어	관계
통상	양자주의	양자주의	일치어
		이국^간^주의	참고어
통상	중간재	중간재	일치어
		최종재	참고어
통상	조치^가능^보조금	상계^가능^보조금	동의어

동의어를 판단하는 데에는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을 참고하였다. 상위어, 하위어, 계열어 등 대상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되는 용어는 참고어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용어의 관련 용어 정보가 적절히 연결되어 있는지 검토를 받아 본 결과 관련 용어 정비 부분에서 눈에 띄는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4.1.7. 대역어 구축

대역어에는 원자료가 최초 「용어 구축 시스템」에 등록될 때 글자 수 입력 제한으로 대역어의 철자가 누락되는 경우와 단순 오타로 인한 오류가 있었다. 검토 단계에서 충분히 수정을 하였으나 미처 수정되지 못한 것은 외부 전문가의 검토 내용을 참고하고 추가 정보 검색과 대조를 거쳐 바로 잡았다.

가장 먼저 대역어의 오타와 철자 누락을 보이는 것들은 다음과 같이 바로잡았다.

<표 21> 오타 및 철자 누락 정비

용어집	용어	대역어	
		애초 정비 내용	최종 정비 내용
지식 재산	페이청우라오^상 표^침해^사건	<영어>Peichungurao case	<영어>Feichungurao case
지식 재산	표장의^국제^등록에^관한^마드리드^협정	<영어>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u>Regi</u>	<영어>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u>Registration of Marks</u>
지식 재산	당사자계^심판	<영어>inter parte appeal <u>proceedin</u>	<영어>inter parte appeal <u>proceeding</u>

연구진에서 정비하여 제시한 대역어를 외부 전문가에게 검토받은 결과 대역어 구성 요소 중 교체가 필요한 것이 있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용어와 정의문의 내용에 맞춰 대역어를 수정하였다.

<표 22> 대역어 구성 요소 교체

용어집	용어	대역어	
		애초 정비 내용	최종 정비 내용
발전	계통^격리	<영어> <u>cycle</u> isolation	<영어> <u>grid</u> isolation
발전	상용^주파수	<영어>commercial <u>cycle</u>	<영어>commercial <u>frequency</u>

그리고 대역어 정보에서 구성 요소가 보충되어야 할 것들이 있었다. 외부 전문가 검토를 받아 보니 기구축 자료 및 정비한 대역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대역어 구성 요소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교류^차단기’의 경우 ‘교류’로 한정지으려면 ‘AC’를 추가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이 제시되었기에 이 의견을 반영하여 대역어를 수정하였다.

<표 23> 대역어 구성 요소의 추가

용어집	용어	대역어	
		애초 정비 내용	최종 정비 내용
발전	계통^용량	<영어>system capacity	<영어> <u>power</u> system capacity
발전	교류^차단기	<영어>circuit breaker	<영어> <u>AC</u> circuit breaker

끝으로 외부 전문가 검토 결과에 기구축 자료 및 정비한 대역어의 전면적인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해당하는 용어들은 아래의 표와 같이 용어와 정의문 내용을 확인하여 대역어를 교체하였다.

<표 24> 대역어의 전면 교체

용어집	용어	대역어	
		애초 정비 내용	최종 정비 내용
발전	기간^계통	<영어>trunk network	<영어> <u>bulk power system</u>
발전	염	<영어>base	<영어> <u>salt</u>

4.2.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4.2.1.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완료 현황 및 통계

이전 장에서 기술한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전산 데이터베이스화를 완료한 표제어의 개수는 모두 7,125개이다.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대상 전문 용어집 자료별 표제어의 개수는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다.

<표 25>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완료 자료별 용어의 개수

	자료명	예상 용어 수	최종 용어 수
1	쉽게 고친 문화재 용어 자료집(민속학 미술사 용어 해설)	672	506
2	쉽게 고친 문화재 용어 자료집(건축사 고고학 용어 해설)	504	684
3	알기 쉬운 농업 용어집	1,205	402
4	국가 건설 기준 용어집(개정증보판)	4,239	4,313
5	2021년 기준 로봇산업 실태 조사	500	211
6	2016년도 퇴직 연금 금융 용어 정보	363	360
7	국제 환경 협상 용어집 A to Z	620	649
합계		8,103	7,125

위의 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개별 대상 자료별 예상 용어의 개수와 최종적으로 작업이 완료된 용어의 개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비구조화된 자료를 기반으로 예상 용어의 개수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자료집의 규모를 기반으로 과잉 집계가 되었기 때문에 예상 용어의 개수와 최종 용어의 개수에 차이가 발생했다[예: 2016년도 퇴직 연금 금융 용어 정보(363개 → 360개), 2021년 기준 로봇산업 실태 조

사(500개 → 211개) 등]. 둘째, 원자료의 표제어 표기 관습의 차이로 인하여 실제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과정에서 하나의 표제어를 둘 이상의 표제어로 분리 기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용어 개수가 늘어났다[예: 국가건설 기준 용어집(개정증보판)(4,239개 → 4,313개)].

이와 같은 이유로 최종적인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대상이 되는 용어의 개수는 원 목표치인 7,000개를 상회하는 7,125개로 최종 집계되었다.

4.2.2. 표제어 정비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의 대상 자료를 대상으로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지침에 따라 「국립국어원 분야별 용어 정비 지침서」의 「2 대상 용어」 항목의 지침 내용을 대체로 따라 정비하였다. 정비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제어는 정비 지침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두 한글로 표기하고, 규범 표기가 정해진 용어는 규범에 맞는 표기를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때 로마자 ‘R’의 경우, 국립국어원과의 협의를 통해 ‘아르’와 ‘알’ 복수 표기 가운데 실제 언어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알’로 표기하였다. 또한 표제어가 구 이상의 성격을 지니는 것들은 구성 요소 사이에 ‘^’을 표시하여 기존의 사전 표기 규약을 최대한 따르도록 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표제어 입력 유형을 보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26〉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표제어 정비 예시

원자료 표제어	정비 결과
SCR(촉매반응탑)	에스시알
	촉매^반응탑
ALC 보/인방보	에이엘시^보
	인방보
2점 집중하중	이점^집중^하중

500년 빈도홍수	오백^년^빈도^홍수
블록전단파단	블록^전단^파단
비가압공간	비가압^공간

표제어 정비 과정에서는 표제어 분리, 한글 표기 전환, 띄어쓰기 정비 등의 세 가지 유형의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다. 먼저 원자료의 표제어가 둘 이상의 표제어로 분리할 필요가 있는 형태로 병기되어 있는 경우(예: SCR(축매반응탑), ALC 보/인방보 등),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과정에서 필요한 표제어만큼 별도의 표제어로 분리하여 하위 표제항을 동일하게 할당하도록 하였다. 둘째,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과정에서 로마자 및 숫자 등으로 표기된 원자료의 표제어(예: SCR, 500년 빈도홍수)를 지침에 따라 한글 표기로 전환하였다(예: 에스시알, 오백^년^빈도^홍수). 셋째, 원자료에 수록된 구 단위 표제어의 경우 대체로 띄어쓰기 규범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구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예: 500년 빈도홍수, 블록전단파단, 비가압공간). 이를 전문용어 관련 규범에 맞게 단어 경계에서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하되 붙여쓰기를 허용한다는 표시에 해당하는 부호(^)를 부착하였다(예: 오백^년^빈도^홍수, 블록^전단^파단, 비가압^공간).

4.2.3. 원어 및 일치어 정비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의 대상 자료를 대상으로 원어 및 일치어 정보는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지침에 따라 정비하였다. 정비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원어 정비의 경우,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대상이 되는 원자료에서 누락되어 있거나 잘못 기입되어 있는 원어 표제항을 대상으로 원어를 새롭게 입력하거나 수정하는 방식으로 정비하였다. 이때 용어 총괄 관리 시스템에서의 어종 정보 역시 원어의 내용을 고려하여 할당하였다.

〈표 27〉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원어 정비 예시

대상용어	원자료 원어	정비 결과	어종
이음부	-	<고유어>이음<한자>部	혼종어
임시선	-	<한자>臨時線	한자어
에스시알	selective catalytic reactor	<영어>SCR(Selective Catalytic Reactor)	외래어
인방보	引枋補	<한자>引枋<고유어>보	혼종어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대상이 되는 원자료의 원어 정보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예: 이음부, 임시선 등)가 대다수를 차지하여, 새롭게 입력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원어 정비 지침에 맞지 않게 기록되어 있는 경우(예: 에스시알 등) 원어 정비 지침을 따라 내용을 수정하였으며[예: selective catalytic reactor → <영어>SCR(Selective Catalytic Reactor)], 원자료의 원어 정보가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예: 인방보 등)에는 오류를 바로 잡았다(引枋補 → <한자>引枋<고유어>보).

4.2.4. 기타 표제항의 정비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대상이 되는 원자료의 정보들 중 용어 총괄 관리 시스템의 표제항 할당이 어려운 정보 항목의 경우, 아래 예시와 같이 이를 삭제하지 않고 ‘참고 사항’ 표제항에 할당하였다.

<표 28>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기타 정보 정비 예시

대상 용어	참고 사항
에스시알	분야: 설비 출처: KDS 31 90 10 관련 단체: 대한설비공학회
힘^인장^균열	분야: 구조 출처: KDS 14 20 30 관련 단체: 한국콘크리트학회
태환^이식	분야: 고고학 순화어: 굽은귀고리, 굽은귀걸이
치미와	분야: 건축사 순화어: 치미(기와)
식이^보충제	분야: 식품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지침에는 개별 대상 자료집별 정보 내용에 따른 표제항의 할당 및 참고 사항 기입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참고 사항에 주로 기입된 내용은 원자료에 기입되어 있는 ‘분야’, ‘출처’, ‘순화어’ 등의 표제항과 관련되는데, 원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제항 유형의 명칭을 최대한 유지하여, 참고 사항에 기입하였다.

이러한 정보들을 「용어 구축 시스템」의 관련 표제항에 할당하지 않은 것은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의 기본적인 방향이 원자료에 기입된 정보 항목의 오염을 최대한 줄인 상태에서 향후 용어 정비 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참고 사항에 기입된 항목은 향후 용어 정비 과업에서 수행될 전문 분야 할당 및 순화어 제시 등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5. 결론

본 과업은 그간 여러 곳에서 구축한 분야별 용어 자료를 국립국어원에서 구축한 「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보완하여 용어가 적절히 유통되도록 하여 용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언중들의 용어 사용의 편의성과 용어의 효용성을 높이는 데에 목적을 둔 것이다.

이번 과업의 첫 번째 목표는 『사회 재난 핵심 용어집』, 『영한중 지식 재산권 용어 사전』, 『산업 자원 용어 약어 해설집』, 『통상 관련 용어집』, 『해외 투자 용어 사전』, 『식품 첨가물 용어집』, 『기구 용기 포장·식의약품 용어집』, 『발전 용어집』에 실린 12,597개 용어에서 정비 대상 용어를 고르고 표제어, 원어, 분야 분류, 정의문, 사용 예시, 관련 용어 정보를 갖춘 1만 개 이상의 용어를 정비하는 데에 있다. 두 번째 목표는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서 공개된 전문 용어집을 대상으로 7종 이상을 전산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용어 구축 시스템」에 실어 기본 정보를 정비하는 데에 있다.

정비 작업은 국립국어원의 지침을 기본으로 하고, 이 지침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국립국어원과 논의하여 지침을 수정·보완하였고, 연구진들의 작업을 위하여 세부 지침을 만들어 보조 지침으로 활용하였다. 정비 작업은 국립국어원에서 구축한 「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수행하였다. 이 시스템에서 집필자로 보조 연구원들을 등록하고 참여율에 따라 용어를 배분하여 정비 작업을 실시하였다. 집필이 완료된 용어는 공동 연구원에게 배정하여 검토와 보완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검토가 완료된 용어 중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것들은 외부 검토 위원에게 검토를 받고 검토 내용을 연구진 내에서 논의하여 적절히 정비 내용에 반영하고 책임 연구원이 최종 검토와 보완 작업을 실시하여 용어를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정비 작업을 한 결과로 『사회 재난 핵심 용어집』에서 1,694개, 『영한중 지식 재산권 용어 사전』에서 1,386개, 『산업 자원 용어 약어 해설집』에서 1,398개, 『통상 관련 용어집』에서 550개, 『해

외 투자 용어 사전』에서 352개, 『식품 첨가물 용어집』에서 718개, 『지구 용기 포장·식의약품 용어집』에서 118개, 『발전 용어집』에서 3,902개를 정비하여 모두 10,118개 용어를 정비 완료하였다.

이렇게 정비된 용어 10,118개를 전문 분야별로 나누어 용어집별로 상위 3위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시하여 보면 『사회 재난 핵심 용어집』은 건설>보건의료>과학기술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영한중 지식 재산권 용어 사전』은 사회과학이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문화예술체육학>정보/통신의 순으로 나타났고, 『산업 자원 용어 약어 해설집』은 사회과학>기계>정보/통신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통상 관련 용어집』은 사회과학이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정보/통신>건설/교통=기계의 순으로 나타났고, 『해외 투자 용어 사전』도 사회과학이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건설/교통>정보/통신의 순으로 나타났다. 『식품 첨가물 용어집』에서는 농림수산식품>화학>생명과학의 순으로, 『지구 용기 포장·식의약품 용어집』은 농림수산식품>화학>생명과학의 순으로, 『발전 용어집』은 기계>전기/전자>에너지/자원의 순으로 분야 분포를 보였다.

10,118개 전체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상위에 사회과학>기계>건설/교통>전기/전자>에너지/자원의 순으로 용어의 분야 분포가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이번 정비 과업을 수행한 결과 위 분야에 해당하는 용어들이 언증들의 언어적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정비 완료된 것들 중에 사용 예시가 갖추어진 것은 9,083개로 과업 목표인 9,000개를 초과 달성하였다. 사용 예시를 찾을 수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한 용어당 한 개씩의 예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일부 용어에 대하여는 복수의 사용 예시를 제시하여, 사용 예시를 통한 용어의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이 사용 예시는 대부분 보도자료, 공공 기관 등의 누리집에 실린 안내 글 또는 공개 자료, 정부에서 발행한 각종 보고서 또는 백서, 신문이나 방송의 기사, 특허 자료, 학술 논문이나 학술 서적에서 찾은 것으로 모두 공적인 언어 사용을 충분히 대표하는 것이다.

전문 용어집을 대상으로 한 전산 데이터베이스화는 연구진에서 대상 후

보 자료 목록을 선별한 후 국립국어원과의 협의 아래 후보를 결정하고 원 자료 구축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이용 허가를 받았다. 그런 후에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지침을 작성하고 확정하여 이에 따라 구조화하여 「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표제어, 원어, 정의문, 관련 용어 정보 등을 갖추는 방식으로 과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쉽게 고친 문화재 용어 자료집(민속학 미술사 용어 해설)」에서 506개, 「쉽게 고친 문화재 용어 자료집(건축사 고고학 용어 해설)」에서 684개, 「알기 쉬운 농업 용어집」에서 402개, 「국가 건설 기준 용어집(개정증보판)」에서 4,313개, 「2021년 기준 로봇산업 실태 조사」에서 211개, 「2016년도 퇴직 연금 금융 용어 정보」에서 360개, 「국제 환경 협상 용어집 A to Z」에서 649개 등 모두 7,125개의 용어를 전산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과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유익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이번 정비 사업의 결과로 한국어 언어 자원을 종합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결과물은 언종들과 호흡을 함께하며 학문의 발전이나 인공 지능·자동 번역 등 언어 자원의 산업화를 추진하는 데에 두루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이번 정비 사업의 결과물은 일반 언종의 눈높이에 맞는 용어 정비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공공 언어, 사전학, 사회 언어학, 언어 교육학 등과 접점이 많다고 하겠다. 이런 면에서 이번 정비 사업을 통하여 얻은 여러 내용을 학계에 발표하고 논의함으로써 용어의 정비와 개선에 관한 이론적인 연구와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이번 과업을 통해서 정비하고 구축하는 정보는 『우리말샘』 등의 국어사전의 미등재어 보완을 위한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국어사전의 전문 용어에는 사용 예시가 거의 제시되어 있지 않는데, 이번 정비를 통해서 확보된 다량의 인용례는 이미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전문 용어의 실제 쓰임을 보여 주는 용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처럼 이번 정비 사업이 결과물은 국어사전의 보완 또는 구축에 활용되어 국어사전의 질적인 개선과 양적인 확장을 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

넷째, 이번 과업을 통하여 수정 및 보완이 된 정보는 전문 용어의 표준화 및 개선 등을 비롯한 다른 공공 언어를 비롯한 언어 개선 사업에 참고 자료가 되고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앞으로 언어 개선을 하는 데에 하나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간의 전문 용어 표준화 또는 개선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결과물이었으나 각 분야마다 기준이 같지는 않아서 통합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 그렇기에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서 정비된 이번 과업의 결과물은 앞으로 전문 용어의 구축, 정비, 표준화를 하는 데에 중요한 참고 기준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다섯째, 이번 과업은 공공 언어의 확립과 개선을 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용어를 정비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공공 언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국립국어원의 중요한 성과물이자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이번 과업의 결과물은 당장은 용어에 관한 양질의 정보를 국어 화자들이 두루 참고하여 공공 용어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관심을 높이는 데에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용어를 바탕으로 하여 공공 언어가 갖추어야 할 바를 어떻게 갖추어 나가도록 하는지를 보여 줄 수 있는 밑천을 얻게 된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여섯째, 국어 교육 및 한국어 교육 전공자들이 다수 참여하여 국어 교육 및 한국어 교육의 관점을 투영하여 추진한 이번 과업의 결과물은 국어 교육을 비롯한 한국어 교육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특정 직업군에 종사하는 특수 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는 일반적인 한국어가 아닌 해당 분야의 전문 용어를 사용 예시 등을 참고해 가며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정비된 용어는 특수 목적 한국어 교육의 직간접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다.

<기획·연구>

국립국어원 강미영 언어정보과장

국립국어원 이현주 학예연구사

국립국어원 김나영 연구원

<연구 참여자>

책임 연구원: 이준환(전남대)

공동 연구원: 조재형(전남대), 백승주(전남대), 조경순(전남대), 최준(전남대),
유하라(성균관대), 임태운(남부대), 최지영(송실대), 이수진(전남대),
공나형(전남대), 최윤(강원대), 선한빛(전남대), 김지혜(한신대)

보조 연구원: 최옥정(전남대), 김다솔(전남대), 이유미(전남대), 고상미(전남대),
하현정(전남대), 이지성(전남대), 오지수(전남대), 전철한(전남대),
진주(전남대), 강영란(전남대), 박찬우(전남대), 김종희(성균관대),
조교현(성균관대), 미즈카이 유카리(전남대), 런 멩지에(전남대)

보조원: 김보미(전남대), 김유정(전남대)

발행인: 국립국어원장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775, 전송 02-2669-9727

인쇄일: 2023년 12월 15일

발행일: 2023년 12월 15일

※ 이 책은 국립국어원의 용역비로 수행한 ‘2023년 분야별 용어 정비’
사업의 결과물을 발간한 것입니다.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